

2 0 1 7
문화연대
정기총회

2017년 2월 21일(화) 18:30, 서울NPO지원센터 대강당 '폼다'

정기총회 순서

인사말

참석자 소개 및 인사

2016년 문화연대 활동평가 발표 및 논의

감사보고

2017년 문화연대 활동계획 발표 및 논의

임원인선

활동결의

더 이야기하는 시간

자료집 순서

2016년 문화연대 활동평가	5
2016년 문화연대 재정결산	43
감사보고	45
2017년 문화연대 활동계획	46
2017년 문화연대 재정계획	68
임원인선(안)	70
부록	
2016년 문화연대 주요활동일지	71
문화연대 정관 개정(안)	79

2016년 문화연대 활동평가

1. 총괄평가

2016년, 문화연대는 크게 두 가지의 내외부적 조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음.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문화연대 공동주택 프로젝트'. 일상에술창작센터 및 5가구와 함께 마포구 성산동에 공동주택을 짓고, 문화연대 사무실이 입주하게 된 것. 이에 '문화연대 공동주택 프로젝트'에 따른 재정계획 수립(대출금 상환계획) 및 사무실을 거점으로 한 활동계획 수립이 요구되었음. 두 번째 조건은 정치지형에 따른 대응. 2016년 총선과 함께 2017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 속에서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연대의 대응이 필요하였음. 예술검열 및 문화행정 파행이 가속화되는 상황,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금융위기, 실업/비정규직/해고,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경제/문화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이었음.

이에 문화연대는 정기총회를 준비하면서 '10+3개의 핵심운동의제'를 선정하고, 2016년 실천을 결의하였음. 이는 문화연대의 활동을 안정화하는 한편, 대안적 문화사회의 형성을 위한 문화운동의 실천, 사회운동과의 연대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었음.

- (1) 젠트리피케이션에 반대하는 문화예술행동
- (2) 박근혜정부 시대의 문화예술 - 예술검열 및 문화행정 파행 백서발간
- (3) 2016 전국문화활동가대회 개최
- (4) 문화정책 감시개혁 및 대안제시 활동
- (5) 메가스포츠이벤트 감시, 대응 및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

- (6) 예술인 사회보장 확보와 예술인복지법 재개정운동
- (7) 문화산업 독점 반대와 문화산업 종다양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 (8) 문화연대 문화거점 공간 확보 및 대안적 문화주체 만들기
- (9) 분단문화연구위원회 발족과 연구 및 정책 활성화
- (10) 문화연대 재정안정화(대출금상환) 및 후원회원 1,000명 확보운동
- (+3)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세월호 참사, 강정해군기지건설 관련 문화예술행동

2016년, 문화연대가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 전개한 활동에서 성과를 남김. 총선 및 조기대선 국면에서 ‘문화정책 플랫폼 2020’은 대안적 문화정책을 생산하고 사회적으로 확산(정책제안, 포럼 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 ‘2016 문화활동가대회’의 경우, 33개 단체-121명의 개인이 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25개의 프로그램이 열리는 2박3일 간의 대회를 통해 전국의 문화활동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고(참석 연인원 820명), 문화연대의 다양한 활동을 모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음. 이 외에도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활동, 마포문화비축기지 활동, 콜트콜텍 수요문화제 지속 개최 등을 통해 네트워크의 발의자이자 중심으로 문화연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음.

10월 ‘2016 문화활동가대회’ 직후부터 불거진 이른바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면에서 이러한 네트워크형 문화연대 활동은 더욱 강조되었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가 접한 이후 성명 발표 -> 문화예술계 대책모임 제안 -> 기자회견 개최 등의 과정으로 이를 확산시켰고, 결국 ‘박근혜 퇴진 문화예술계 시국선언’과 광화문캠핑촌, ‘박근혜 퇴진과 새로운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로 이어지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조직하였음.

반면에 문화연대 내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했던 운동의제의 경우, 계획대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문화산업 독점 반대와 문화산업 종다양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과 ‘후원회원 1,000명 확보운동’, ‘예술검열 및 문화행정 파행 백서발간’(2016 문화활동가대회 기간 중 전시로 대체)과 같은 운동의제의 경우, 지속적인 내부 역량 배치와 모임 조직 등이 필요했으나 당장에 필요한 직접적이고 대외적인 활동에 밀린 경향이 있음.

결국, ‘10+3 핵심운동의제’로 제시한 2016년 문화연대 활동은 운동의제별로 활동의 편차가 존재했음. 문화연대 내부 역량(상근활동가 및 집행위원의 숫자, 전문영역 등)에 비해 과다한 운동의제가 설정된 측면도 있겠으나, 핵심운동의제 간 연계(가능)성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노력, 과정이 부족하여 10+3개의 의제가 각각 별도의 기획/실행으로 뒷받침되었어야 하는 문제가 더 컸다고 볼 수 있음.

2. 10+3 핵심운동의제 평가

2-1. 젠트리피케이션에 반대하는 문화예술행동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테이크아웃드로잉 재난연구소 활성화	테이크아웃드로잉 대책위원회 활동 진행 재난연구소 활성화 및 단행본 발행 진행 중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사무국 운영 및 다양한 활동 실천 26번째 자치구 운동과 연계하여 활동 진행
기타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현장에 대한 문화예술행동 진행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을 통해 우장창창, 아현포차 등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주체들과의 연대 진행

2) 활동평가

(1) 경과

문화연대의 오랜 운동의제였던 공간 정의, 공간 환경을 둘러싼 공공성과 다양성 등의 맥락에서 문화연대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주목해 왔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기존 문화연대의 접근이 연구와 토론 등을 통한 사회적 의제화 과정이었다면 최근 들어 도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요구가 높아져 왔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 대한 권리 침해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도시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시민권 및 문화민주주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운동 의제로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새로운 운동 의제로서 공유지 운동 전개

(2) 총평

테이크아웃드로잉 대책위원회 및 재난연구소 활동,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사회 의제화하고 공유지 운동의 출발점을 마련하였음.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현장 연대 활동, 경의선과 광화문의 공유지 운동 기획 및 실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과 공유지 담론 관련 연구 및 토론회 활동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음.

문화연대의 객관적인 역량에 비해 해당 활동들의 대상이 넓어서 집중력에 한계가 있음. 특히 외부 연대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에 비해 문화연대 내부의 공감과 협력이 부족했다고 평가됨.

(3) 사업별 평가

① 테이크아웃드로잉 대책위원회

- 테이크아웃드로잉 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당 문제의 1차적인 해결에 기여함
- 테이크아웃드로잉 대책위원회 과정에서 재난연구소 제안 및 기획하여 진행됨 :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당사자, 예술가, 연구자, 활동가들 사이의 협력 활동 모델 마련. 2017년 초에 단행본 출간 예정
- 2차례의 국회 토론회를 비롯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의제화에 기여

②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사무국, 운영위원회 등을 비롯하여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활성화 : 시민시장, 야시장, 도시답사, 공유지 공연 및 거리예술, 공유지 관련 세미나 및 강좌, 예술가 입주 활동, 경의선 공유지 영화제 개최 등 다양한 활동 진행
- 아현포차, 우장창창 등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26번째 자치구 운동 참여 :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과 연계 및 통합하여 진행 중

2-2. 박근혜정부 시대의 문화예술 - 예술검열 및 문화행정 파행 백서발간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예술검열 반대 페스티벌	‘2016 문화활동가대회’에서 <예술검열 아카이브 전시> 진행
예술검열 반대를 위한 월례포럼	별도 월례포럼은 진행하지 않음
예술검열 백서 발간	‘2016 문화활동가대회’에서 예술검열 문화행정파행 관련 브로셔 발행. 2017년 백서발간 계획(블랙리스트 특위)
기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맞아 10/18 예술검열반대 기자회견, 11/2 문화예술계 시국선언 개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광화문캠핑촌’ 조성 및 ‘예술행동위원회’ 결성의 계기가 됨

2) 활동평가

(1) 경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예술검열 사태 및 문화행정 파행 문제에 대한 기록과 분석, 문화예술인들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백서발간, 월례포럼, 페스티벌 등의 활동 기획. 상반기 만민공동회 주요 참여단위들과 함께 한 차례 회의를 개최, 백서 발간 중심의 활동에 대한 논의 진행함.

하반기, ‘예술검열 및 문화행정 파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핵심운동의제 기획 의도에 부합하기 위해 <2016 문화활동가대회>와 연계한 전시 개최로 활동계획 수정함. 10/27(목)~11/2(수)까지 성북구 아리랑씨네센터 1층 로비에서 ‘예술검열 아카이브 전시’ 개최 및 브로셔 발행.

2016년 10월 들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실재하며 그 숫자가 1만여 명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옴. 곧바로 문화예술계 내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논의를 진행. “우리 모두가 블랙

리스트 예술가다”라는 취지의 ‘예술검열반대 기자회견’(10/18),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문화예술계 시국선언’(11/2)을 개최함.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광화문캠핑촌>이 만들어지고,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 위원회’가 결성되는 계기가 됨. 블랙리스트 문제는 특검 고발 및 수사로 연결되어 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음.

(2) 평가

활동계획 수행을 위한 역량 배치의 문제 : 월례포럼, 백서발간, 페스티벌 등 1년 동안의 꾸준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역량이 배치되지 못함. 2015 만민공동회의 경험으로 연대단위 및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계획 수행을 피하였으나 조직되지 못함.

정세적 계기에 대응하는 노력 진행 : 블랙리스트 명단 공개, 2016 문화활동가대회 개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정세적인 계기를 맞아 예술검열 및 문화행정 파행 이슈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진행. 문화예술계 조직 및 <광화문캠핑촌>을 중심으로 한 토론, 예술행동 등의 시발점이 됨.

2-3. 2016 전국문화활동가대회 개최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변화를 비롯해 예술, 교육, 생태, 지역, 공간, 생활 등 문화활동의 대안과 새로운 전망 모색을 위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토론	- 명칭 : 2016 문화활동가대회 - 슬로건 : 문화야, 괜찮니 - 일시 : 2016 11. 27(목) ~ 29(토), 3일간 - 장소 : 성북구 일대, 플랫폼창동61 - 주최 : 2016 문화활동가대회 조직위원회 - 협력 :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문화재단 등 지원조직별, 사회적경제 영역별, 지역단위의 자발적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운동 등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의 사례 공유	- 조직위원회 : 33개 단체, 121명 개인 - 재정 : 모금 4,576,000원 + 후원 11,600,000원 - 프로그램 : 25개 프로그램 (표 아래 내용 참고) - 대회 참여자 : 연인원 820명

문화활동가대회를 계기로
(가칭)'전국문화활동가네트워크'와 같은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모색

활동 공유와 일상적인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온라인 공간을 유지 : 카톡방과 홈페이지
2017 문화활동가대회 준비를 위한 테이블 구성

*2016 문화활동가대회 프로그램 세부내용 : [탐방] 공유와 협치의 실험실 '성북', 풍문으로 들었소 [영화상영회] 김경묵 감독과 '줄탁동시' [오픈테이블] 나와 우리 안의 '분단'에 관하여 [오픈테이블] 문화정책의 고고학 [포럼]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정치 [토론회] 문화, 투쟁에서 양념인가? 주재료 인가? [오픈테이블] 해방 후 우리의 국제스포츠 무대 진출기 [개막행사] 안녕, 문화활동가. 어색해도 괜찮아 [워크숍] 함께 활동할 수 있을까? : 문화활동가 세대 간 차이와 연결에 대해 [토론회] 지역문화재단,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픈테이블] 공유지를 탈환하라 : 도시 공공공간의 재전유를 위한 새로운 전략 [대토론회] 문화운동의 새로운 흐름 [공유난장] 천하제일문화활동가대회 : 실패담 [포럼] 예술노동의 여러 가지 쟁점들 [오픈테이블] 눈물없이, 끈질기게, 품나게 생존하기 [네트워킹] 이거슨, 진짜 파티 [토론회] 534명의 예술강사가 답하다 : 예술강사 노동실태 개선방안 [오픈테이블] 문화기획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나 [포럼] 사회적 재난과 문화적 개입 [포럼] 전대미문 : 전국의 문화활동가들 대의를 모아 미래의 문화도시를 묻다 [오픈테이블] 청년예술가, 새로운 전환을 말하다 [폐막행사] 2016년 문화활동가의 바람과 약속 [기획전시 1] 문화정책의 고고학 [기획전시 2] 예술검열의 서사, 그의 말 [기획전시 3] 사진가 노순택의 시선 : 참사 이후의 참사는 누구의 책임인가

2) 활동평가

(1) 총평

문화운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정책 파행이라는 배경 속에서 문화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다양한 의제들의 공론장을 만들어낸 것은 시의적절한 기획이었고, 기존 문화운동 주체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음.

문화운동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대회 개최를 목표로 공개제안 형식과 조직위원회 중심의 대회 준비방식을 채택했지만, 결과적으로 문화연대 중심성을 크게 탈피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음.

대회 흥행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문화활동가들의 참여가 많이 아쉬웠는데, 2017년 대회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함.

(2) 사업별 평가

- 기획과 홍보 : 초반전략의 한계. 준비과정에서 생기는 쟁점이나 이슈들이 문화운동 판 안에서 계속 공유되고 확장되었어야 했는데 잘 안됐음. '지금의 문화운동은 무엇이고, 문화활동가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좀 더 집중하고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음.
- 조직위원회 구성과 운영 : 짧은 기간 문화연대의 네트워크 자원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었음. 하지만 준비과정에서 조직위원의 참여가 부족했고, 대회 진행에 필요한 실무역량 역시 문화연대가 대부분 조달. 핵심 파트너에 대한 사전 고려 속에서 초반 팀워크 형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
- 의제 선정과 공론장 : 문화예술의 현재 좌표를 확인하고, 미래를 고민해볼 수 있는 의제와 이슈들이 꼼꼼히 다채롭게 담겼음. 하지만 많은 경우 처음 의제를 접한 사람들에게 의제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었고, 질의/응답과 토론은 크게 활발하지 않았음. 공론장의 내용적 성과에 대해 면밀한 고려가 부족했고, 해당 의제의 당사자 혹은 현장주체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이 아쉬웠음.
- 재정 모금과 운영 : 재정은 목표에 맞게 모금되었고, 적절한 규모로 집행됨.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의 재정지원은 요긴했는데, 집행과정에서 행정과의 교감이나 사전 조율은 아쉬웠던 부분.
- 장소 분산 개최의 난점 : 성북지역과 플랫폼창동61 장소성 잘 살지 못함. 장소성을 활용한 기획이 부족했고, 지역 주체들과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웠음.
- 개별 세션 : 다양한 주제는 긍정적 평가. 세션들이 너무 많아 선택과 집중이 아쉬웠다는 평가 많았음.
- 대토론회 : 전반적으로 시간이 짧아 토론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여백 부족. 세션을 줄이더라도 토론시간을 넉넉하게 잡아 난상토론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 참가자들의 다양한 스펙트럼도 활발한 토론을 어렵게 한 측면도 있음.

2-4. 문화정책 감시개혁 및 대안제시 활동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정책 제안 자료집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20대 문화정책과제> 발간	<20대 국회에 제안하는 20대 문화정책 제안서> 발간
대안을 준비하는 문화정책 월례포럼 개최	문화정책플랫폼 2020 구성 및 운영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광장토론위원회 구성 및 주간 토론회 개최 (총 11회)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 대응 모임 구성 및 운영 -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특검 고발 :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등 구속 - 461명의 문화예술인 집단 손해배상 소송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특검에 추가 고발 -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법률 토론회 외
	문화연대와 <내일신문> 공동기획으로 '박근혜정부, 문화융성의 몰락' 기획기사(총 5회) 게재
	문화정책의 대안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4회) 개최

2) 활동평가

(1) 총평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활동, 박근혜 탄핵 국면, 블랙리스트 사태 등을 계기로 문화정책 감시개혁 활동의 재활성화 계기 마련

- 박근혜 탄핵 국면에 따라 2017년 대통령 선거 타임라인 등이 모두 유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문화연대 문화정책 감시개혁 및 대안제시 활동 역시 탄력적으로 운영되었음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응, 광장토론회위원회 등 사회적 맥락과 시기에 맞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실천되었다고 평가됨
- 박근혜 탄핵 국면 이후 사회적 불안정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정책 감시개혁 및 대안제시 활동은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됨
- 문화연대 문화정책 활동의 결과물을 사회적으로 소통, 공유하는 방법론 부족

(2) 사업별 평가

- 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활동을 계기로 문화정책 감시개혁 활동의 재활성화 계기 마련
 - 국회 관련 문화정책 활동의 체계화, 재활성화의 계기 마련
 - 문화연대 중심의 새로운 문화정책 연구자 네트워크 구성의 전환점 마련
- ② 문화연대 문화정책플랫폼2020 구성 등을 통해 문화연구자 네트워킹 활성화
 - 국회의원 선거 활동을 전환점으로 상설적인 문화정책 연구자 플랫폼 형성
 -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등 향후 문화정책 연구 활동의 출발점 마련
 - 차세대 문화정책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박근혜 탄핵 국면 이후 조기 대선 등의 이유로 활동이 중단되는 한계 및 과제 존재
- ③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으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문화정책에 대한 감시개혁 활동 활성화
 -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특검 고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추진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내일신문> 공동 기획기사 등 문화행정 감시개혁 및 대안 제시 활동 활성화
 -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광장토론회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토론의 장 기획 및 운영
 - 문화정책의 대안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4회) 개최 등 박근혜 탄핵과 문화행정 파탄 국면에서 문화정책 감시개혁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2-5. 메가스포츠이벤트 감시, 대응 및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메가스포츠이벤트 관련 법제도 정비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문제점 분석 토론회 개최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 입법청원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 D-1년을 계기로 평창동계올림픽 점검 및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관련 국회토론회 추진 예정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과정 감시활동	개폐막식장 전면 재검토 축구 기자회견 개최

2) 활동평가

(1) 경과

2015년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운동을 평가하면서, 문화연대를 포함한 참여단체들은 2016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메가스포츠이벤트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는 해’로 설정함. 이는 현실적으로 분산개최가 불가능해진 상황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까지 2년이나 남은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었음. 이에 국회 및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하되, 정기모임은 하지 않음.

상반기, 개폐막식장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고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등 노동권 문제가 알려지면서 평창조직위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노동권 관련 민주노총과 공동대응 모색하였으나 무산됨.

하반기, 평창동계올림픽 전반의 준비과정을 점검하는 국회토론회를 기획하였으나 국회의원실 쪽의 미온적인 반응 및 이후 문화활동가대회 및 촛불국면을 맞아 국회토론회는 결국 진행되지 못함.

(2) 평가

2016년을 장기적인 태세 점검의 해로 정하였으나, 문화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운동의 특성상 이는 운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결과를 낳음. 국정농단 사태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평창동계

올림픽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메가스포츠이벤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으나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

문화연대 내부 역량의 약화 및 집중력 부족 : 문화연대의 체육 관련 역량은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와 중첩되어 있는 상황. 내부 역량의 형성, 강화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연대의 내부 역량(정희준, 정용철, 이대택 집행위원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큼.

2-6. 예술인 사회보장 확보와 예술인복지법 재개정운동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예술인 사회보장 확보를 위한 연구조사 활동 활성화	로이엔터테인먼트 고발 등 문화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참여
예술인 사회보장 활동 실천 및 예술인소셜유니온 등 연대단위와 공동행동, 유대관계 활성화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간담회 진행 및 예술인소셜유니온 활동 지원
예술인 사회보장 제도 마련, 예술인복지법 개정 등 제도개선 활동	술술포럼 및 전국문화활동가대회 예술노동파트 참여

2) 활동평가

(1) 총평

예술과 기술, 노동을 통합한 술술포럼을 통해 각계의 시각차를 좁히는 계기가 되었음.

문화연대, 참여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그리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함께 참여한 로이엔터테인먼트 대응모임은 3월과 9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후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모임으로 확대 운영됨. 현재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고발 관련 모임의 핵심으로 활동 중.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과 예술인소셜유니온과 함께 '2016 전국문화활동가대회'에서 토론회를

진행. 이들 단위와는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 특히,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의 8월 예술강사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농성에 문화연대는 연대 성명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

(2) 사업별 평가

- 술술포럼 : ‘예술과 노동의 접합 가능성과 필요성’(오경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예술노동의 쟁점들’(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예술, 기술, 그리고 사회적인 것의 관계’(이광석, 문화연대 집행위원). 이후 ‘2016 문화활동가대회’에서 예술노동 관련 토론회 진행

- 로이엔터테인먼트 대응 기자회견 : 3월 16일, 9월 23일

2-7. 문화산업 독점 반대와 문화산업 종다양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문화산업 독점 문제와 대안 모색’ 연구팀 구성	문화산업 연구모임 1회 진행
‘(가칭)문화산업 종다양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진행하지 못함

2) 활동평가

(1) 경과

문화산업 독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을 진행했으나, 연구모임 구성원들의 타 의제에 대한 과도한 업무부담과 문화산업 분야의제에 대한 현실가능한 실행계획과 전략의 부재로 지속적임 모임으로 이어지지 못함.

근래에 들어 문화산업 전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산업구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

집. 특히 유통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수직계열화는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고착화하면서 단순히 문화자본에 대한 독점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또한, 문화산업 분야별 산업구조의 특성과 환경여건에 따라 다양한 의제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산업 현장과의 소통부재로 이러한 흐름들을 읽어내지 못함.

(2) 활동평가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의제 개발 필요 : 문화연대가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가치와 철학에 대한 강점은 꾸준히 가져온 반면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문화산업에 대한 현장성과 정보의 부재로 인한 한계를 보여줌. 새롭게 떠오르는 문화산업 분야의 다양한 정책적 주체들과 연계, 새로운 전문인력의 영입을 통한 노력이 필요.

2-8. 문화연대 문화거점 공간 확보 및 대안적 문화주체 만들기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및 문화연대 준비 점검 논의	- 문화비축기지(서울시) 거버넌스 참여 - 돌곶이생활예술창작센터(성북구) 거버넌스 참여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문화연대 시민문화활동 아카이빙	- 대안적 제작문화 포럼 진행
대안적 문화활동 주체형성	- 성북 지역문화 및 시민자치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와 커뮤니티 형성 : 공유성북원탁회의, 월간<동네교육> 제안 및 참여 외 * 시민자치 추가 작성

2) 활동평가

(1) 총평

- 문화연대 문화거점 공간 확보를 위해 서울시, 성북구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버넌스(협치)

활동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문화연대 문화거점 공간 확보 전략과 관련하여 문화연대 인력 풀의 한계가 존재함
- 성북지역 시민자치문화 활동의 경우 성북창조문화도시위원회, 공유성북원탁회의, 푸른누리 마을학교, 예술마을만들기, 돌곶이생활예술창작센터 등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활동 환경을 축적하고 있음
- 기관 및 공간 위탁시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내부 원칙과 매뉴얼 필요

(2) 사업별 평가

① 문화비축기지의 경우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간 협치 테이블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가능성을 만들어 가고 있음

- 민간 계획에 기반하여 개장 준비 진행 중
- 향후 민간 위탁을 준비하는 모임 구성 및 참여 중

② 돌곶이생활예술창작센터의 경우 시민자치문화센터 내에 준비TF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거버넌스(협치) 진행

- 민간 주도적인 기획과 운영을 바탕으로 성북구와의 협력을 통해 2017년 봄 개장 예정
- 공유성북원탁회의, 성북문화재단, 지역 주민커뮤니티 등과의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중

③ 성북구 지역문화 및 시민자치 활동

- 공유성북원탁회의 참여 : 공유성북원탁회의의 경험과 주체가 축적되면서 지역내 다양한 민간 주도 활동들이 확장되고 있음. 2016년의 경우 동 단위 축제 협력 기획 및 운영, 4개 권역 예술마을만들기 활동,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 협동조합 설립 등이 추진 됨
- 지역 기반 교육활동 출발점 마련 : 푸른누리마을학교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월간〈동네교육〉 등을 비롯하여 지역 기반 교육운동 거점 및 커뮤니티 마련

④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

- 대안적 시민문화의 구성요소로서 ‘가족’과 ‘가족문화’를 주목, 서울시 가족문화정책의 중요한 전달체계로 기능하는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6년 1월부터 위탁 운영 중(위탁기간 3년)

- 가족문화의 재구성, 새로운 가족상의 창출 등을 목표로 센터 사업의 변화를 꾀하고 있고, 센터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2-9. 분단문화연구위원회 발족과 연구 및 정책 활성화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분단문화연구위원회 활성화 : 월례회 등	분단문화콜로키움(4강) 개최
1년에 2번, 세미나 개최	'2016 문화활동가대회'에 영화상영 및 워크숍 개최

2) 활동평가

(1) 총평

2016년 분단 고착 70년을 맞아 문화연대는 '분단문화연구위원회'를 설치. 우리 주위를 둘러싼 왜곡된 '분단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반도 평화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 내기로 함.

분단문화콜로키움, 2016 문화활동가대회 프로그램 기획/참여 등을 진행하여 참여자들과 함께 분단, 평화, 통일, 남남갈등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나 '분단문화연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생성하지는 못함.

(2) 사업별 평가

① 분단문화콜로키움

- 총 4강으로 진행. 재일조선인 문제, 북한붕괴론 비판, 독일통일과 한반도통일, 사드 배치 등이 주제
- 콜로키움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분단문화 관련한 문화연대의 플랫폼/토대가 약하여 홍보 및 참가자 조직 등에서 한계

② 2016 문화활동가대회

- 영화상영 및 분단문화 워크숍 개최. 별도 기획단 운영
- 성북지역 활동가, 주민 등 참여. 프로그램 만족도 높아 대회 이후에도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

2-10. 문화연대 재정안정화(대출금상환) 및 후원회원 1,000명 확보운동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공동주택 및 문화연대 사무실 사용설명서 제작	문화연대 공동주택 프로젝트 소개자료 및 후원요청 자료 등 총2종의 선전물 제작, 온라인 배포
문화연대 사무실 공간기획 및 제작	별도 회의실 없는, 카페 형태의 공간기획. 사무실 필요물품 일부 직접 제작
문화연대 공동주택 관련 벽돌기금 모금	벽돌기금 모금 진행
문화연대 공동주택 기금마련을 위한 플리마켓 개최	진행하지 못함
문화연대 사무실의 안정적인 운영	노력 중. 안정적인 운영에는 미흡
오늘의 회원 확대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1,000명 후원회원 확보에는 실패

2) 활동평가

(1) 경과

2016년 5월 입주 예정이던 공동주택 건립 일정이 늦어지면서 2달여 간 사무실 없이 지냄. 사무실이 없는 기간 동안 경의선광장을 거점으로 활동. 7월부터 새 사무실에서 업무. 고정 책상 4개만 두고 나머지 공간은 공용테이블을 두고 운영하는 공간기획. 문화운동의 새로운 거점이 되기를 희망했으나, 정세적 요인 + 지리적인 불리함으로 인해 실제 개방적인 공간, 문화예술계의 거점공간이 되지는 못함.

문화연대 공동주택의 의미, 벽돌기금 등 후원요청하는 2종의 선전물을 만들어 배포. 2015년부터 벽돌기금 모금이 이어지면서 추가 모금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 2016년 모금 실적은 좋지 않음. 벽돌기금은 누적 약 4천만원 모금.

(2) 평가

문화연대 새 사무실 마련 : 문화연대 공동주택 프로젝트의 결과, 더 이상 이사할 필요 없는 문화연대 거점공간을 마련함. 2020년 6월까지 2억 2천만원 상환해야 함(연 이자는 2%).

사무실 운영의 불안정성 : 사무실이 없었던 두 달, 그리고 이사 후 적응 기간까지 해서 사무실 운영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했음. 게다가 11월 이후 광화문캠핑촌에 2명의 상근활동가가 파견되면서 기본 상근인력의 부족 + 회의구조의 불안정이 커짐.

재정안정화 활동의 부재 : 벽돌기금 모금의 피로도 증가, 상반기 사무실 이사 관련 어수선행, 정세적 요인 등이 더해져 재정안정화 관련 모금이나 후원회원 확보 등의 활동이 부재했음.

2-11.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세월호 참사, 강정해군기지건설 관련 문화예술행동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세월호 진실규명 연대활동	- 세월호 광화문 광장위원회 참여 - 단원고등학교 교실 지키기 예술행동 진행 외
콜트콜텍기타노동자 연대활동	- 콜트콜텍기타노동자 공동행동 운영 및 활동 참여 -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공개 사과 도출 - 수요문화제, 광화문 캠핑촌내 콜트콜텍기타노동자의집 등 지속적인 활동 진행 - 하반기 박근혜탄핵 국면 이후 자체 활동 진행하지 못함
강정 평화/문화 마을만들기 연대활동	- 강정생명평화대행진, 강정평화사진관, 이어붙이는 뜨개농성, 마을 장승 세우기 등의 활동

진행

- 강정 마을의 상황, 문화연대 내부 동력의 부족 등으로 연대활동 지속
-

2) 활동평가

(1) 총평

- 문화연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해 왔던 세월호 진실 규명 활동, 콜트콜텍기타노동자 투쟁, 강정 평화/문화 마을 만들기 등의 사회적 연대 실천
- 사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문화연대의 전체적인 역량의 한계, 장기화된 운동의 자체적 한계 등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지속되지 못한 채 사안별, 시기별 활동의 형식으로 진행됨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화연대의 사회적 연대 운동에 대한 좀 더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운동 기획 및 연대 활동 필요

(2) 사업별 평가

① 세월호 진실규명 연대활동

- 문화연대는 2016년 상반기에 단원고등학교 세월호 교실 지키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주체들과 연대하여 예술행동 진행
- 2016년 하반기 박근혜 퇴진 국면에서 세월호 진실규명이 이슈가 되며 광화문 촛불집회를 통해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문화연대는 광화문 캠핑촌 활동 이후 현장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천하고 있음
- 문화연대는 세월호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광화문 광장위원회 활동, 광화문 세월호 문화제 <스태이지 416> 등을 기획 및 참여하여 지속적인 연대와 실천을 모색하였음

② 콜트콜텍기타노동자 연대활동

- 콜트콜텍기타노동자 연대활동은 투쟁의 장기화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해 있음

-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노동탄압 발언(콜트콜텍기타노동자 등과 관련하여 사실 왜곡 발언) 이후 여의도로 새로운 농성장을 조성하고, 45일간 이어진 단식농성 끝에 2016년 8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무성에게 공개사과 받음
- 문화연대는 2016년에도 콜트콜텍기타노동자 투쟁과 관련하여 농성장 운영 참여, 매일 마지막주 수요문화제, 사안별 대응 활동 등 진행하였음
- 박근혜 퇴진 국면 이후 세종로 정부청사로 박근혜퇴진을 위한 노동자 공투단 농성 돌입, 광화문 캠핑촌 연대 활동 집중 등 외부적 요인으로 현재 콜트콜텍기타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이 일시 중단되어 있음
-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 타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 문제 해결을 의제화하고 문제 해결을 추진할 계획

③ 강정 평화/문화 마을 만들기 활동

- 문화연대는 물리적 거리의 어려움으로 강정 연대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웠음
- 강정 활동 주체들의 제안이 없는 상황에서 강정 평화/문화 마을 만들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 강정생명평화대행진, 강정평화사진관, 이어붙이는 뜨개농성, 마을 장승 세우기 등의 활동 진행
- 2016년 문화연대 총회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가치와 방법에 기반한 마을 만들기 활동을 추진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나 물리적, 현실적 거리감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됨
- 2017년에도 기본적인 네트워크와 연대활동 방식으로 강정 마을의 후속 활동에 연대하고 소통을 확대할 계획

3. (사)시민자치문화센터 2016년 활동평가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 센터 연구 프로젝트 : 시민문화, 생태문화, 자치문화관련 아카이브 & 라이브러리 진행	- 월례포럼 TF 구성 및 운영 : 대안적 시민문화를 주제로 연속적인 포럼을 기획 - 대안적 '제작문화' 기획포럼 진행 * 1회차 : 소비자에서 메이커와 창작자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_협력과 공동체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다(10월 13일) * 2회차 : 제작문화의 연결과 확장(11월 15일)
- 제1회 전국문화활동가대회 사업 진행	별도 기술 (핵심운동의제 03)
- 공공문화기반시설, 문화공간 위탁운영을 위한 자료 및 사례조사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TF 구성 및 운영 : 서울시 건강가족 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법인과 센터를 연계할 사업 의논 (양기민, 김지빈, 이호섭, 장민경) - 돌곶이생활예술창작센터 TF 구성 및 운영 : 민간위탁 사존작업으로 운영방향, 운영컨셉, 프로그램 기획 등을 의논 (박현진, 박이현, 황지원, 송수연, 이원재)
- 위탁사업 관리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
- 사단법인 시스템화 : 법인 운영 정상화	- 2016년 3월 신입 안성민 활동가 총원되어 상근(소장)하고 이승희활동가 보직변경으로 사단법인 운영의 기반이 마련 - 신입 이사진 선임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변경 (고유목적사업에 바탕을 둔 수익사업 가능) - 운영위원회(신입이사진으로 구성된)를 운영하여 법인의 활동방향 운영구조에 대해 논의 - 법인 C.I, 홈페이지 제작 - 프로젝트 : 평창 계촌마을 벽화그리기 사업(7월 18일~8월 17일)

2) 활동평가

(1) 총평

- 거버넌스를 통한 시설 및 거점 위탁 운영에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였지만, 관련 인력풀 부족과 조직적 태세 미비 등의 한계를 드러냈음. 조직적인 준비가 더 필요했음.
- 몇 개의 위탁사업을 준비하는 것 외에 주요한 고유사업이 부재했음. 대안적 시민문화 현장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역할 혹은 대안적 시민문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담론 형성 등에 목표를 갖고 사업화하는 등의 시도가 필요했음.
- 조직운영에 관한 시스템이 마련되었지만, 활동방향에 대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고 시민자치문화센터가 어떤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구성할 지는 더욱 논의되어야 함.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이 필요.

(2) 사업별 평가

① 서울시건강가족지원센터 위탁업무

- 시민자치문화센터 내 건가TF를 구성하여 단순히 위탁법인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사업적 연계 등 적극적인 모범인 역할을 하고자 함. 상반기 건가센터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혁신을 위한 과제별 TF, 센터 운영위원회 및 월례평가회의 등에 참여하면서 협력방안을 모색
- 하지만 가족의제를 사업화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협업에는 한계를 보였음. 또한 건가센터와 모법인의 소통과 협업에 대한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센터 내부 조직운영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함
- 건가센터 운영에 관해 내부역량을 고려한 현실적인 협력방안을 찾아야 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담은 운영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제1회 전국문화활동가대회 개최 : 별도 기술 (핵심운동의제 03)

③ 돌곶이생활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 시민자치문화센터 내에 준비TF를 구성하고 위탁을 준비해왔으나, 성북구 내부 사정으로 인해 민간위탁이 연기된 상황. 성북구청 직영 센터로 올해 말까지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활동가를 파견하고 센터 활성화를 위해 당분간 노력을 지속. 성북구청, 성북구의회 등

과의 협의 속에서 2018년 민간위탁 재추진 예정

- 돌곶이센터는 시민자치문화센터의 외연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이론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임. 하지만 민간위탁을 추진했던 애초 목표와 실제 만들어진 조건과 환경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상황. 현실을 고려한 목표 재설정이 불가피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관련 네트워크 확보가 시급함.

④ 시민자치 월례포럼

- 살림센터와 대안적 제작문화를 주제로 두 차례의 포럼을 진행.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의례 및 생애주기별 가족문제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고자 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함

- 돌곶이생활예술창작센터 위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럼을 통해 제작문화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 또한 포럼주제와 관련하여 공동주최할 수 있는 단위를 찾아 같이 기획, 진행함으로써 내용의 깊이와 외연을 넓히는 효과가 있었음. 하지만 포럼 기획이 꾸준하지 못했던 점과 사전 논의와 학습이 부족해 기획과 내용 준비가 세밀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웠음

⑤ 법인 운영 정상화

- 신입 이사진을 구성하여 법인등기를 마쳤고, 이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 수익사업변경신청, 나라장터 등록 등을 진행하고, 법인 CI와 홈페이지를 제작했음. 또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의 비전과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함

-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정체되어 있던 법인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핵심사업 등을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에는 결과가 모아지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못함.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민자치문화센터의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될 필요가 있음

⑥ 기타 : 평창 벽화 그리기 사업

- 재원 확보, 예술가들과의 협업, 지역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사업 진행. 큰 규모의 예술마을 프로젝트였으나, 실제 계약이 진행되면서 사업내용과 비용이 축소되었고, 계약방식도 예술가들이 직접 개별 계약하는 것으로 진행됨. 시민자치문화센터는 계약 관련한 행정과의 조율 및 관리업무만을 담당함

-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술가들의 후원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었지만,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이력 및 자격 관리, 사업자 등록, 나라장터 등록 등이 갖춰져있지 않아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았음

3) 2016년 재정결산

2016년 수입					
항목	과목	금액	항목	과목	금액
후원금	개인후원금	13,268,400	사업비	[위탁]건강가정지원센터	1,192,658,000
	단체후원금	16,000,000		소계	1,192,658,000
소계		29,268,400	기타수입	예금이자	28,626
				차입금 반환	5,000,000
				오류 재입금	1,640,000
				문화연대 음식장만	600,000
				소계	7,268,626
			수입 합계	1,229,195,026	
			전년 이월금	5,443,897	
			수입 총계	1,234,638,923	
2016년 지출					
항목	과목	금액	항목	과목	금액
인건비	활동비	25,670,000	사업비	[위탁]건강가정지원센터	1,192,658,000
	소계	25,670,000		[기금]서울문화재단_예 술사회적실천	2,935,833
운영비	보험료(4대, 화재)	4,142,510	기타지출	소계	1,195,593,833
	세무기장료	1,980,000		오류로인한출금	1,640,000
	통신비	181,500		문화연대 음식장만	600,000
	수수료	202,000	소계	2,240,000	
	회의비	1,295,805			
	경조사비	100,000			
	발송비/운반비	46,530			
	소모품비	422,750			
	교통비	5,300			
	관리비	537,740			
소계	8,914,135				
			지출 합계	1,232,417,968	
			차년 이월금	2,220,955	
			지출 총계	1,234,638,923	

*수입 중 '차입금반환' 5,000,000원은 2015년 12월 문화사회연구소에 5,000,000원을 빌려주었던 금액을 다시 반환받은 것임.

4. (사)문화사회연구소 2016년 활동평가

1) 활동결과(표)

계획	계획	결과
증장기 연구 방향 수립 및 활성화	“소중(小衆, the popular)시대의 정서구조”를 2016-17년의 연구 테마로 설정	소중(小衆)시대 세미나 8회 진행
월담	· 상반기: 문화정치 지형 가능성 탐색 · 하반기: 문화산업의 새로운 축적논리와 주체형태	· 연 7회 월담 진행 · 평균 15~20명 내외로 월담 참여
세미나	· 한국 문화운동의 계보학 · 예사인 · 푸코 세미나 · 문화연구 입문세미나 · 문화연구 심화세미나 · 소중시대	2016년 잠시 중단 후 재개 11회 진행 잠정적 중단 4회 진행 4회 진행 8회 진행
강좌	상반기 ‘쪽방촌 인문학’ 사업 추진 하반기 2017년 동계 강좌 기획	8회 진행 · 문화이론: 6회 진행 · 질적연구 방법론: 8회*2개 진행
연구 프로젝트	· 단행본 기획/ 인문학 대중화 사업 공모 계획	· 보류
회원 사업		· 연구원 <북토크> 2회 진행 · 학단협 심포지움 발표 1회 · 포트락 파티(네트워크 파티) 1회
팀블로그 칼럼 연재		· 9명 운영위원, 27회 칼럼 생산
정기 이사회	연 1회 개최	· 이사 7명, 소장 외 운영위원 3인 참석

2) 활동평가

(1) 조직 정비

① 회원사업 기획: 북토크

일시	발표 주제	발표자/토론자	참여 인원
1월	김성윤 소장 신간 <덕후감>	김성윤/문강형준	40명~45명
10월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천주희/김주환	35~40명

② 박사급 연구원 충원

- 신규 운영위원으로 김주환, 정원옥 박사 연구원 충원
- 김성윤 소장의 박사 학위 취득까지 포함하여 총 3명의 박사 연구진이 있음

③ 이사회 및 총회

- 2016년 7월 이사회 진행
- 2017년부터 이사회 및 총회를 함께 기획하여 진행하고자 함. 또한 시기를 하계에서 춘계로 조정하고자 함

④ 회원 체계 정비

- 2017년 사업으로 보류

(2) 연구 활동

① 대중문화이론 개조 작업

- 축적논리: 플랫폼 자본주의 비판, 문화산업 동학 분석, 노동 관념과 형태 분석
- 주체형태: '소중' 정서구조 분석, 현대사회의 주체형태 해명, 포지셔닝이론+정동이론
- 지식생산: 비평이론 체계화, 정세 분석 및 정책 비판에 활용, 온/오프라인 지면 연재, 2019년까지 2~3종 단행본 발간

② 입문/심화 세미나 확장

세미나 종류	길잡이	기간	횟수
문화연구 입문세미나	이종찬	2016년 4월~5월	4회
문화연구 심화 세미나	외부	2016년 4월~ 7월	8회
소중 세미나	김성윤	2016년 3월 ~	8회

(3) 강좌 사업

	2016년 하계 현장 강좌	회기	참여 인원
1	2016년 돈의동 쪽방촌 인문학 강좌	8회	25명~30명
	2017년 동계 문화사회 아카데미 기획	회기	신청 인원
1	문화 이론의 어떤 계보	6회	14명
2	질적연구 방법론 (2개반 개설)	8회	35명

(4) 2016년 월담 · 심포지엄

일시	'월담' 발표 주제	토론자/사회자	참여 인원
2월	청년, 민주주의 길을 묻다 SEALDs로 보는 일본 청년의 정치사회 의식	후쿠시마 미노리 /이종찬	35~40명
3월	사상으로서의 4.16	이종찬/심성보	15~20명
4월	'노동'과 '사표'사이	이영룡/최혁규	10~15명
9월	문화산업, 아마추어 웹툰작가, 노동	박범기/김성윤	20~25명
10월	대중형태와 정치적 주체성	서동진/김성윤	20~25명
11월	국내 메이커 운동 담론의 형성	최혁규	5명~10명
12월	플랫폼 자본주의의 논리들	백옥인/김성윤	15~20명
일시	'심포지엄' 발표 주제	발표자/토론자	참여 인원
5월	대학생과 청년의 재현, 활동 그리고 정치	최혁규, 맹기돈 /김성윤	10명~15명

(5) 문화사회연구소 팀블로그 칼럼

No	일자	연구원	제목
1	5월 2일	맹기돈	그들의 탈직장이 꿈꾸는 사회
2	5월 9일	박범기	이후의 시간과 이후의 시간들에 대한 기록
3	5월 16일	김소형	골목길에 가려져 있는 다른 세상
4	5월 23일	김성윤	대중문화이론 개조를 위한 프로젝트
5	5월 30일	이종찬	박유하 그리고/혹은 한나 아렌트
6	6월 6일	천주희	세 번째 죽음
7	6월 13일	정지은	백석 그리고 권리장전
8	6월 20일	최혁규	현장에 연구자의 몸을!
9	6월 27일	맹기돈	자본주의와 대중정치
10	7월 4일	박범기	냉장고 없는 삶에 대하여
11	7월 11일	김소형	별들에게 물어봐
12	7월 18일	김성윤	덕후...안여돼? 능력자?
13	7월 25일	이종찬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세대, 갈등/연대
14	8월 30일	정지은	착한 소비는 가능한가?
15	9월 13일	최혁규	어디선가 불어오는 혁명의 바람?
16	9월 25일	김주환	선물경제와 집단기만
17	10월 7일	이종찬	이것은 휴머니즘이 아니다
18	10월 11일	박범기	삼십대의 어느 날, 위빠사나를 만나다
19	10월 22일	이종찬	사과의 기술
20	10월 23일	맹기돈	회의가 불러온 비판에 대처하기
21	10월 23일	박범기	유행 타는 문학, 새로운 문예지의 탄생
22	10월 31일	박범기	이자혜 사건이 보여준 웹툰 장의 결함
23	11월 6일	김소형	‘대국민 사과’라는 쇼의 역설
24	11월 13일	김성윤	박근혜 이후의 민주주의
25	11월 13일	이종찬	11/12 집회가 끝나고 난 뒤 “ ‘그리고’&‘그러나’
26	11월 28일	천주희	나에게 135만원이 생긴다면?
27	12월 4일	이종찬	2016 촛불의 두 풍경: 꽃벽 스티커와 100미터

(6) 프로젝트

No	프로젝트명	책임연구원	금액(천원)
1	서울시민문화권 선언 기초자료 조사용역 * 기간: 2016년 2월~7월	이원재	17,460
2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평가모델 개발 컨설팅 * 기간: 2016년 6월~12월	이동연	43,910
3	성북창조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 기간: 2016년 6월~12월	이동연	35,890
4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 평가 용역 * 기간: 2016년 6월~12월	이원재	21,000
5	나주시 문화예술 중단기 계획수립 * 기간: 2016년 6월~12월	심광현	45,000
6	<쪽방촌 인문학 강좌> * 기간: 2016년 6월~7월	김소형	10,700
7	한예종 중창포럼 행사 용역 * 기간: 2016년 9월~12월	맹기돈	18,000
8	문화활동가대회 행사 용역 * 기간: 2016년 10월~11월	안성민	9,600
9	문화과학 한·중·일 컨퍼런스 * 기간: 2016년 10월	이동연	30,000
10	광명시 문화민주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 기간: 2016년 10월 ~	이원재	14,250
11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핵심 문화정책과제 개발 연구 * 기간: 2016년 12월 ~	이원재	14,795
합 계			260,605

3) 2016년 재정결산

2016년 수입						
항목	과목	금액	항목	과목	금액	
회비	CMS	6,285,000	프로젝트	서울 청년허브	10,000,000	
소계		6,285,000		서울시문화권선언	17,460,000	
후원금	개인 후원	168,000		쪽방촌 인문학	3,433,520	
소계		168,000		성북창조도시	35,890,000	
사업비	강좌	6,180,000		문화과학컨퍼런스	30,000,000	
	세미나	1,730,000		문화활동가대회	9,600,000	
소계		7,910,000		한예중 중창포럼	18,000,000	
기타수입	예금이자	31,970		서울시 문화평가	43,910,000	
	기타수입	519,477		16년 성남모니터링	21,000,000	
	15' 프로젝트 잔금	1,982,056		나주시 중단기	21,460,000	
소계		2,533,503		소계		210,753,520
수입 합계				228,285,603		
전년 이월금				86,898,095		
수입 총계			315,183,698			
2016년 지출						
항목	과목	금액	항목	과목	금액	
인건비	활동비	16,155,000	프로젝트	한문연 문화평가	17,556,664	
	상여금	300,000		서울연구원 평가	602,000	
소계		16,455,000		홍우주 마포조사	7,079,831	
운영비	보험료	2,041,040		SKT 모바일기반	16,665,180	
	관리비	990,000		15년 모니터링	5,780,963	
	통신비	183,350		서울시민문화권	10,020,700	
	수수료	187,150		성북 연구	9,001,000	
	회의비	1,309,560		NHN 소셜카지노	2,843,000	
	비품구입비	436,000		서울문화평가	39,067,695	
	세금과공과	5,981,923		성북창조도시	22,191,993	
	소모품비	353,300		쪽방촌인문학	605,800	
	여비교통비	84,600		16년 모니터링	20,420,268	
	도서인쇄비	63,000		나주시 중단기	21,679,602	
	발송비	41,850	창동일대(탈락)	186,900		
	경조사비	100,000	한예중 중창포럼	16,193,690		
	복리후생비	261,500	문화활동가대회	9,656,000		
교육훈련비	90,000	광명 문화도시	167,200			

	소계	12,123,273		문화과학 컨퍼런스	28,501,245
기타지출	차입금 반환	5,000,000		소계	228,219,731
	16년 원천징수	2,000,000	사업비	연대사업	8,489,431
	기타지출	304,010		월례발표회	2,904,550
소 계	7,304,010	세미나		1,591,790	
		쪽방촌인문학		217,500	
		포트락파티		462,240	
		17' 동계강좌		455,000	
				소 계	14,120,511
	지출 합계				278,222,525
	차년 이월금				36,961,173
	지출 총계				315,183,698

5. 조직운영 평가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상,하반기 워크숍, 집행위원회 회의, 상근활동가 회의 토론 강화	상/하반기 워크숍 개최, 총 31회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상근활동가 회의 주1회 개최
홈페이지 리뉴얼 및 아카이브 구축	내부 논의 진행. 2017년 상반기 내 홈페이지 리뉴얼 및 기본 아카이브 구축 예정
급여체계 등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기반 재구축	급여체계 일부 수정(경력인정 부분) 문화연대 조직운영 관련 10가지 주제에 대한 상근활동가 내부 토론 진행
사무실 공간 재배치	사무실 공간 이전 및 재배치 진행

2) 활동평가

2015년부터 문화연대는 기존 센터,위원회 체계를 대신하여 ‘핵심운동의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운영’을 실험하고 있음. 조직운영 실험의 배경은 문화연대 운동의제에 대한 집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운동의제별로 구체적인 결과/성적을 측정하고 축적하기 위함이었음. 2016년에도 실험을 계속하여 ‘10+3개 핵심운동의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운영을 시도하였음.

핵심운동의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 운영하는 내부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고, 이와 동시에 조직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직운영(홍보, 회원, (재)교육, 협력 및 연대, 성과측정 및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핵심운동의제 및 정세 대응, 네트워크 활동을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기초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집중력이 발휘되지 못하면서 조직의 불안정성이 가중됨. 1명의 상근활동가/집행위원이 2~3개의 핵심운동의제에 배치되고, ‘2016 문화활동가대회’, ‘광화문캠핑촌’ 등 조직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활동이 생겨나면서 구심력은 더 강화되고, 조직의 기초를 정비하는 일은 뒤로 미뤄지게 됨.

상반기 평가워크숍, 31차 진행한 집행위원회의, 주1회 상근활동가회의, 그리고 10개 주제로 나눠 진행한 상근활동가들의 조직운영워크숍까지. 나름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토론은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음. 워크숍 및 토론의 결과가 2017년 활동계획을 반영되어 2016

년 활동평가 내용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핵심운동의제 중심의 조직운영 평가 및 조직 골간구조 (재)구축 문제
- 상근활동가/집행위원 체계 점검 및 인적자원 재구성
- 비영리조직 핵심역량으로 제시되는 [기획, 거버넌스, 리더십, 회원활동, 인적자원 관리, 학습, 자금 관리, 자원 관리, 홍보, 협력, 평가, 성과] 등의 측면에서 조직운영을 평가하고, 문화연대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조직운영방안 논의
-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

6. 특별보고

6-1. 문화연대 공동주택 프로젝트

1) 문화연대 이사의 역사

남산
1999년 9월 18일. 문화연대 창립 후 첫 번째 사무실(영화인회의 더부살이)

압구정
2000년 4월. 영화인회의 이사와 함께 압구정으로 옮김(처음이자 마지막 강남생활)

화동
2000년 9월 정독도서관과 아트선재 코앞의 작은 한옥집. 옛 동네의 정취와 한옥의 매력의 물씬

아현동
2002년 8월. 대로변이자 교통의 요지. 하지만 추억을 쌓기엔 너무 짧은 시간

서대문
2003년 3월. 서대문역 코앞의 진정한 교통의 요지. 매주 월요일 07:00 집행위원회 회의가 열리던 곳

운니동
2005년 11월. 다시 한옥으로. 가장 근사했던, 그래서 가장 임대료가 비쌌던 공간. 25명의 상근활동가가 북적대던 곳

공덕동
2007년 11월. 처음으로 간판을 단, 가장 오래 머물렀던 사무실. 아래위층으로 봉제공장과 신발공장이 있던 작은 빌딩

연남동
2013년 11월. 수요식당과 옥상텃밭. 천장을 달리던 쥐떼의 기억. 문화연대 공동주택 프로젝트가 시작된 공간

성산동
2016년 7월, 문화연대 공동주택 프로젝트로 성산동 시대를 열다. 대지65평, 지하1층 지상5층의 공동주택. 일상예술창작센터 및 5가구와 함께 지음. 문화연대는 3층 한켠에 사

무실을 둬. 커뮤니티키친, 공방, 창고, 테라스, 옥상 등의 공동공간

2) 문화연대 공동주택 프로젝트 입주

- 2016년 7월 1일, 문화연대 공동주택 프로젝트 입주 : 문화연대 3층 사무실 공간은 약 18평(책상4, 개방형 회의테이블, 남/녀화장실, 탕비실 등). 지하 창고, 커뮤니티키친, 공방, 테라스, 옥상 등 공동공간

- 공동주택 프로젝트 분담금 총 3억원. 기존 사무실 보증금(6천만원) 및 벽돌기금 모금(4천만원) 등으로 1억원 분담. 남은 대출금 상환액 2억원

3) 향후 과제

- 문화연대 사무실 공간 이용 확대 : 주택가 한복판,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낮은 어려움이 있으나 가능한 개방적인 공간으로, 문화예술활동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

- 공동주택 공간 이용 확대 : 지역-동네활동의 거점공간으로 공동주택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동네 기반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필요 있음

- 대출금 상환 노력 : 2020년 6월까지 대출금 상환 목표를 두고, '재정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위해 노력해야 함

6-2. 박근혜 퇴진과 블랙리스트 사태 대응 활동

1) 주요 활동내용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제안 및 참여

- 약 8000여 명, 300여 개 단체 참여

광화문 캠핑촌 형성 및 참여

-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참여

-
- 광화문 광장 예술행동 활성화 : 미술관(국립현대미술광장), 극장(블랙텐트), 하야하락, <광장신문> 발행, 블랙리스트 버스 외
-

광장토론위원회 구성 및 주간 토론회 개최 (총 11회)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 대응 모임 구성 및 운영

-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특검 고발 : 김기춘, 조운선, 김종덕 등 구속
 - 461명의 문화예술인 집단 손해배상 소송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특검에 추가 고발
 -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법률 토론회 외
-

2) 활동평가

(1) 총평

블랙리스트 사태를 전후로 문화연대는 박근혜 퇴진 운동, 블랙리스트 사태 대응 활동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 제안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진행

문화연대가 지속적으로 대응해 온 새누리당 집권 이후 예술 검열 문제가 박근혜퇴진 국면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로 전면화됨

문화연대 등이 구성하고 활동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박근혜퇴진 국면에서 예술운동, 광장 토론, 사회적 연대 등이 활성화됨

문화연대, 문화문제대응모임, 예술인소셜유니온,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구성한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 대응 모임을 통해 특검 고발, 문화예술인 집단 소송 등이 추진되었으며 김기춘, 조운선, 김종덕 등의 구속은 물론 블랙리스트와 예술 검열 문제가 사회화되는 전환점이 되었음

(2) 주요 경과 _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광화문 캠프촌 주요 활동

- 2016년 11월 04일 오전 11시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 예술행동위원회 시국선언> 진행 : 참가자 7449명, 289개 단체

- 11월 05일 광화문 광장 텐트 설치 및 광화문 캠핑촌 예술행동 시작
- 11월 06일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구성
- 11월 10일 광화문 캠핑촌 블랙리스트 페스티벌
- 11월 12일 풍물단체연합 터밧기 터굿, 마임공연
- 11월 13일 검열-성폭행에 항의하는 '검은시장' 블랙마켓
- 11월 17일~19일 박근혜 퇴진 신나는 확킹 문화난장 '하야하락'(1차 3일간)
- 11월 19일 <광장신문> 1호 발간
- 11월 22일 '새마음애국태근해자울 청소봉사단' 활동 시작, 박근혜 하야하라~굿
- 11월 26일 <광장신문> 2호 발간, '하야하락'(2차, 전국 9개 도시)
- 11월 27일 일과노래 콘서트 <고백>
- 11월 29일 광장토론위원회 구성, <광장토론01_박근혜퇴진을 위한 광장의정치와 경로>
- 12월 01일~03일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 굿
- 12월 03일 '하야하락'(3차, 전국 7개 도시)
- 12월 06일 <광장토론02_진짜 퇴진을 위해광장정치는 무엇을 할 것인가?>
- 12월 08일 '박근혜 즉각 퇴진 및 블랙리스트 관련 구속수사 촉구'(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 12월 10일 <광장토론03_탄핵 이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광장신문> 3호 발간, 박근혜 즉각 퇴진 퍼레이드
- 12월 12일 기자회견 '블랙리스트 관련 특검 고발' (특검 사무실 앞)
- 12월 13일 <광장토론04_평등한 광장의 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12월 14일 <양심수를 위한 연대의 밤>(서울구치소)
- 12월 20일 <광장토론05_탄핵 이후 광장정치의 문화적 의미와 예술운동의 방향>
- 12월 24일 도깨비 판굿 강강술래, 즉각퇴진 깃발 퍼포먼스
<궁핍현대무실광장 개관>, 콘서트 <광장의 노래>
- 12월 27일 <광장토론06_재벌총수 즉각구속, 재벌해체와 삶의 변화>
- 12월 29일 기자회견 <조윤선 사퇴 및 구속수사 기자회견>
- 12월 30일 박근혜 정권 열사, 희생자 추모제 <광장을 비추는 별>
- 12월 31일 광화문 새날맞이 굿
- 2017년 01월 07일 “빼앗긴 극장, 이 곳에 세우다, 광장극장 <블랙텐트>” 설치
- 01월 10일 <광장토론07-2017 촛불에 바란다>
- 01월 11일~12일 <블랙리스트 버스>(세종시 정부청사, 1박2일)
- 01월 14일 궁핍현대미술광장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전시회 시작
- 01월 16일~20일 블랙텐트 <빨간시> 공연
- 01월 21일 <광장토론08_광장정치를 둘러싼 정세와 대응전략>, 공연 <얼쭈 탄핵하세>

- 01월 23일~24일 블랙텐트 〈그와 그녀의 옷장〉 공연
- 01월 24일 〈광장토론09_대안언론과 광장의 정치〉
- 01월 25일~27일 블랙텐트 〈마임〉 공연
- 01월 28일 노동자+블랙리스트 합동차레
- 01월 28일 궁핍현대미술광장 〈광장 목판화전〉 시작
- 01월 31일~02월 03일 블랙텐트 〈검열언어의 정치학 : 두개의 국민〉 공연
- 02월 04일 블랙텐트 특별상영회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 〈광장신문〉 4호 발행 ‘탄핵 이제 재벌 차례다’
- 02월 06일 기자회견 〈천박한 정치인들은 더러운잠에서 깨어나라〉
- 02월 09일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261명 집단 소송 및 기자회견
 - 특검 추가 고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 매주 금요일 : 박근혜 구속 금요 춤교실
- * 매주 토요일 : 길거리 붓글쓰기, 즉각퇴진 깃발 퍼포먼스, 차벽공략 미술프로젝트

2016년 문화연대 재정결산

1. 수입

2016년 수입					
항목	과목	금액	항목	과목	금액
회비	CMS	86,858,120	기타수입	기타	5,239,146
	CMS 연대사업비	53,616,460		보증금	60,000,000
소계		140,474,580		이자	32,688
후원금	개인후원금	72,534,337	소계		65,271,834
	단체후원금	23,098,617			
	후원의밤	18,895,000			
소계		114,527,954			
수입 합계				320,274,368	
전년 이월금				36,321,443	
수입 총계				356,595,811	

2. 지출

2016년 지출					
항목	과목	금액	항목	과목	금액
인건비	활동비	108,666,000	사업비	도시재생포럼	1,400,000
	상여금	2,420,540		성남모니터링	3,225,992
소계		111,086,540		강내희출판기념회	1,172,820
운영비	보험료(4대, 화재)	11,768,590		경의선공유지난장	165,000
	경조사비	200,000		광화문캠핑	514,300
	임차료	6,893,200		문화과학	80,000
	통신비	3,073,940		문화활동가대회	497,180
	수수료	116,900		분단문화위원회	1,467,240
	소모품비	956,600		블랙리스트	35,000
	수도광열비	1,396,894		사무처	599,000
	회의비	1,437,510		서울예술인플랜토론회	1,341,500
	운반비	10,000		성북인권콘서트	1,891,500
	세금과공과	123,370		세월호스테이지416	93,000
	도서구입비	18,000		송년의밤	422,460
	이자	1,466,668		술술포럼	84,000
	복리후생비	1,019,995		연대사업	22,817,600
	발송비	42,400		이사	5,600,100
	수선비	1,350,000		정책센터	1,067,580
여비교통비	551,800	젠트리피케이션		483,740	
소계		30,425,867		집들이	1,175,850
			총선정책제안토론회	1,089,000	
			총회	827,160	
			테이크아웃드로잉	26,000	
			후원의밤	4,581,340	
			소계		50,657,362
			기타지출	CMS 연대사업비	52,541,000
				보증금	80,000,000
				기타	1,635,704
			소계		134,176,704
			지출 합계		
차월 이월금			30,249,338		
지출 총계			356,595,811		

감사보고서

문화연대 귀중

문화연대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제17차 사업년도의 결산감사를 2017년 2월 17일에 실시하여 보고 드리며, 2017년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합니다.

1) 감사방법의 개요

감사를 위하여 문화연대 월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재정결산 보고서와 지출결의서 및 증빙등 (통장거래내역 포함) 회계에 관한 장부를 열람하고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조회, 의견청취, 기타의 감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2) 회계감사 결과보고

예결산 총괄표는 정관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17일

감사 김 상 균

2017년 문화연대 활동계획

1. 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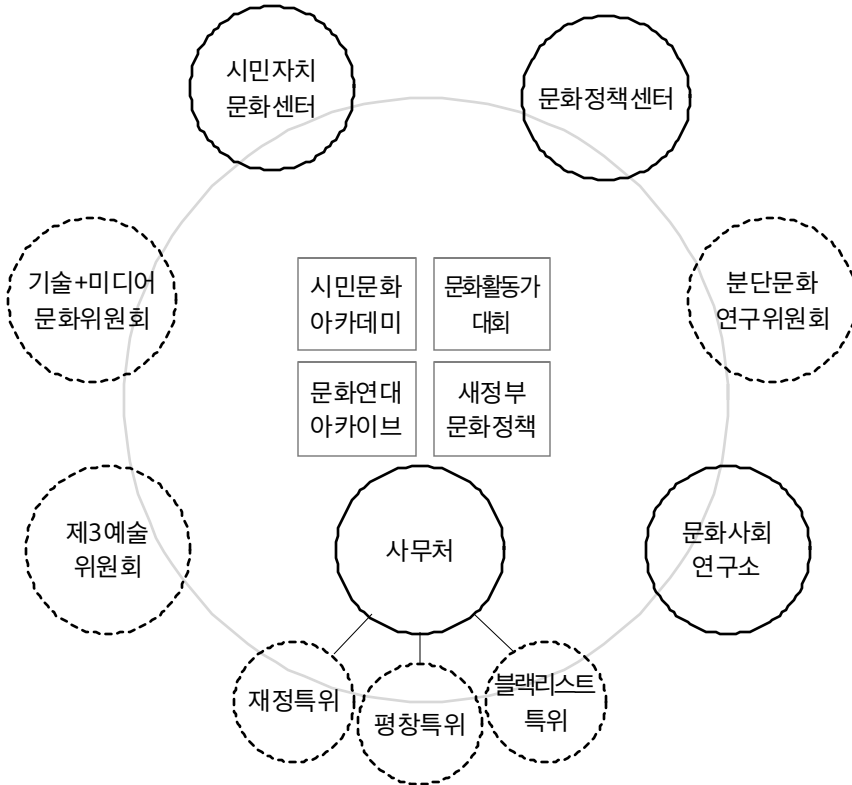
2016년, 문화연대는 많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1999년에 창립한 문화연대가 17년 만에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단독 건물로 이전했고, 수년 전부터 계획에만 그쳤던 문화활동가 대회를 처음 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문화연대 운동의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하반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예술검열과 블랙리스트 사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는 예술인 시국선언과 광화문 예술인 캠핑촌 노숙농성, 그리고 블랙리스트 주도자와 부역자 특검고발 및 블랙리스트 예술인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현장에서 실천들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7년, 문화연대는 2016년의 활동을 바탕으로 미처 완료하지 못했던 의제들을 마무리하고, 문화정책, 문화행동, 시민문화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와 예술인들의 창작의 자유, 그리고 문화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1) 문화연대 새로운 조직 강화를 위한 플랜: 가칭 <트리플 3 프로젝트: Triple Three Project>

- 기존의 상설조직인 문화정책센터, (사)시민자치문화센터, (사)문화사회연구소의 위상강화
- 3개의 새로운 위원회 구성 : 제3예술위원회, 미디어+기술문화위원회, 분단문화위원회 구성
- 3개의 특별위원회 구성 : 블랙리스트특별위원회, 평창특별위원회, 재정특별위원회 구성

[트리플 3 프로젝트 Triple Three Project - 그림]



(3센터/연구소 - 3위원회 - 3특위 - 1사무처)

(2) 집행위원회-활동가 연계 활동의제 강화

- 2016년 문화연대 활동을 위한 10대 의제가 충분하게 성공적이지 못한 것은 1인 집행위원 중심의 책임제가 활동의 제약을 가져다주었기 때문.
- 2017년에는 의제를 중범주로 바꾸고, 각각의 의제에 복수의 집행위원과 1인 이상의 활동가를 배치하여 의제가 통합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집행위원의 활동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 문화연대 사무처와 활동가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의제중심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구성.

(3) 대선국면에서 차기 정부 문화정책 공약 제안 및 대안적인 문화정책의 개입활동 강화

- 2017년 대선은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안적인 문화정책에 대선공약 제안 사전 준비가 요구됨.
- 대통령선거 문화공약 메뉴페스트를 위한 공약작성위원회 구성, 문화예술단체 문화공약집 발간, 대선후보자 토론회 개최 등의 실무 일정준비
- 대통령 선거 이후 무너진 문화정책과 행정의 복원과 대안구성을 위한 실질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

(4) 블랙리스트와 예술 검열 대응 추가활동

- 블랙리스트 사태를 끝까지 끌고가기 위해, 박근혜 탄핵 국면과 대선 이후에도 블랙리스트와 예술검열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
- 블랙리스트 고발과 소송에 대한 후속 조치 진행
- 블랙리스트 백서발간 및 아카이빙 구축, 추가 토론회 기획

(5) 기술문화 혁명 시대 문화변동에 대한 연구와 정책 제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기술문화의 혁신이 개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바꾸어놓았고, 바꿀 예정인지에 대한 연구진행
- 가칭 “씨드라이프: 기술문화 혁명의 시대, 새로운 테크노감각 형성과 엔터테인먼트의 변화 연구 프로젝트 진행
- 제작문화, 테크노문화, 개인의 문화일상의 변화를 조망하는 교육포럼과 정책과제들을 제시.

(6) 사회적 연대활동의 지속과 강화

- 문화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이라는 문화연대의 고유한 실천 과제를 지속하는 다양한 연대활동을 지속
- 세월호, 콜트콜텍, 용산, 쌍차 등 아직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재난과 노동권리 투쟁의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
- 사회적 연대활동의 지속과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성.

2. 기구별 활동계획

2-1. 문화정책센터

1) 활동방향

- ① 문화정책 감시개혁운동 전문성 및 일상성 강화
- ② 문화정책 활동의 사회적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 ③ 정부의 문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감시개혁 및 대안제시 활동 활성화

2) 주요활동계획

(1) 운영계획

- ①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 문화연대 집행위원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가, 활동가 등으로 문화정책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들의 소통, 토론, 협력을 통한 활동 프로세스 구축
- ② 문화정책 전문가 및 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
 - 문화연대 외부의 전문가 및 활동가들과의 일상적인 협력 체계 구축
 - 문화연대 문화정책플랫폼2020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
- ③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 결과물의 사회적 공유 및 홍보 활성화
- ④ 문화연대 타 활동기구들, 의제들과의 협력 활동 강화

(2) 문화연대 문화정책플랫폼2020 활성화

- 문화연대 문화정책 전문가+활동가 네트워크로 구축했던 <문화정책플랫폼2020>의 일상적인 활동력 확보
- 월례포럼, 기획 워크숍 등을 통해 활동력 강화
- 기존 문화정책 범주를 넘어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활동가 풀 구축

(3)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월간 정책리포트 발행

- 기존 월간<문화사회>(PDF 파일로 발행)를 문화리포트 형식으로 전환하여 활성화
- 문화연대 문화정책 감시개혁 활동의 일상성, 대중성 등 담보
- 이와 연계하여 문화정책을 사회적, 대중적으로 공유 및 홍보할 수 있는 SNS,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추진

(4) 정부의 문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감시개혁 및 대안제시 활동 활성화

① 블랙리스트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 기존 블랙리스트 문제 대응 활동 지속적으로 추진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전면 조사 촉구 활동
- 예술 검열 금지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본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

② 다음정부 문화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활동

-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문화예술분야 혁신 과제 의제화 : 정책 제안서 발행, 공약 검토 의견서 발행, 정책토론회 개최 외
- 다음 정부의 문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감시개혁 활동 : (가칭)문화정책 정상화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블랙리스트 사태 전면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문화부 및 전문기관 자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혁신 외

2-2. (사)시민자치문화센터

1) 활동방향

- ① 실효성 있는 민간위탁 업무체계 마련
- ② 제작문화 거점, '돌곶이생활문화센터' 활성화
- ③ 시민교육 플랫폼, '시민문화아카데미'(가칭) 추진
- ④ (마포/성북)지역 연계 활동 강화

2) 주요활동계획

(1) 운영계획

- ① 법인 운영 안정화 및 신규 사업 역량 확충
 - 운영위원 보강, 운영위원회 정례화, 상근활동가 1인 충원
- ② ‘돌곳이생활문화센터’ 사업팀 구성 및 운영
 - 돌곳이생활문화센터 상근활동가 2명을 포함한 사업팀 구성, 사업 구상 및 네트워크 확장
- ③ ‘시민문화아카데미’ 사업팀 구성 및 운영
 - 문화연대 내외부 전문가 및 활동가로 구성된 사업팀 구성, 아카데미 사업 기획 및 추진

(2) 실효성 있는 민간위탁 업무체계 마련

- ① 민간위탁시 기관 운영/관리의 원칙이 되는 ‘위탁기관 운영규정’ 마련 및 적용
- ② 법인과 위탁기관 간의 공식적인 소통체계 마련
- ③ 상/하반기 위탁기관 지도점검 추진
- ④ 위탁기관 종사자 교육 진행

(3) 제작문화 거점, ‘돌곳이생활문화센터’ 활성화

- ① ‘개인적인-사회적인’ 제작 실험 :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및 확장
- ② 예술가, 엔지니어, 과학자, 디자이너, 제작자, 연구자, 활동가, 시민들의 협업 플랫폼 운영
- ③ 성북지역 문화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프로젝트 진행
- ④ 지역 주민들과 ‘생활예술’, ‘생활창작’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 형성

(4) 시민교육 플랫폼, ‘시민문화아카데미’(가칭) 추진

- ① 기존 시민교육 및 활동가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조사 및 평가, 개선점 도출
- ② 시민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업 네트워크 구축
- ③ 새로운 시민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아카데미 운영모델 실험
- ④ 상반기 시민교육 및 활동가 재교육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5) (마포/성북)지역 연계 활동 강화

- ① 성북지역 ‘공유성북원탁회의’, 마포지역 ‘시민협력플랫폼’ 참여
- ② 성북지역 자치구 문화예술 거버넌스 모델 실험 지속
- ③ 마포지역 ‘문화비축기지’, ‘경의선광장’ 등 중요 이슈별로 적극 연계
- ④ 문화연대 성산동 공간을 거점으로 한 지역/일상활동 모색

3) 예산계획

(1) 수입계획

항목	과목	금액(원)	비고
사업수입	위탁사업	1,468,551,00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젝트	10,000,000	
	아카데미	5,000,000	
후원수입	개인 및 단체 후원금	39,000,000	
기타수입	기타	69,000	
	예금이자	30,045	
수입 합계		1,522,650,045	
전년 이월금		2,220,955	
수입 총계		1,524,871,000	

(2) 지출계획

항목	과목	금액(원)	비고
인건비	활동비 1	20,740,000	1,645,000 × 2개월 + 1,745,000 × 10개월
	활동비 2	11,700,000	1,300,000 × 9개월
	소계	32,440,000	

운영비	보험료(4대, 화재)	4,500,000	4대 보험 적용인원 : 5명 (기존4명)
	세무기장료	1,980,000	
	수수료	200,000	
	회의비	1,000,000	
	발송비/운반비	100,000	
	소모품비	500,000	
	교통비	100,000	
	예비비	500,000	
	소계	8,880,000	
사업비	위탁사업	1,468,551,00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젝트	10,000,000	
	아카데미	5,000,000	
	소계	1,483,551,000	
지출 합계		1,524,871,000	
차기년도 이월금		0	
지출 총계		1,524,871,000	

2-3. (사)문화사회연구소

1) 조직정비

(1) 임원, 연구원 및 회원 체계 정리 및 운영위원 재정비

- '회원' 명부 작성: 상근연구원
- '연구원' 내규 확정: TF팀 구성
- 소장, 연구기획실장, 간사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TF팀에서 추후 논의 및 확정
- 춘계 이사회 보고

(2) 소장 반상근 연구

- 2017년 2월부터 주2회로 반상근 연구활동을 할 예정

2) 연구 활동

No	연구 프로젝트	책임연구원	시기
1	서비스 플랫폼의 등장과 대중 형태의 변화	김성윤	춘계
2	사회적 경제의 구성적 맥락 연구	김성윤, 김주환	"
3	북한 문화예술에서의 민중적 요소의 모순적 재현	오창은, 권조금상	"

3) (춘계) 강좌 사업

No	강좌명	강사	장소
1	질적연구 방법론-기초	외부	서울시NPO센터
2	질적연구 방법론-심화	외부	서울시NPO센터
3	대중문화 강좌	김성윤	가톨릭 청년회관
4	푸코 또는 비판적 담론분석	김주환	가톨릭 청년회관
5	문학비평	이종찬	돌곶이 창작센터

4) 상반기 월담 기획

- 상반기 월담은 내부 연구원들의 연구 주제 공유 및 내부 역량을 위해 각자의 연구주제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함. 단 5월은 제외하고 대중에게 오픈형식으로 진행할 예정

No	월담 주제	연구원
2월	'사회적인 것'의 이데올로기적 지형	김성윤
3월	마르셀 모스의 선물gift 경제, 사회의 가능성인가 불가능성인가	김주환
	'보편성'으로서의 휴머니즘	이종찬
4월	미정	김성윤
	"	최혁규
5월	"	정지은
	"	천주희
6월	"	맹기돈
	"	박범기

5) 팀블로그 칼럼 운영안

- 기존 필진에서 팀블로그 연구원을 재정비 후 2월부터 칼럼을 발행하고자 함
- 김주환, 천주희, 김성윤, 김소형, 맹기돈, 박범기 연구원 순으로 1주 1회 발행
- 편집장은 박범기 연구원이 맡기로 하며 2월은 김소형 상근연구원이 대행
- 문화사회연구소 연구 프로젝트 및 월담 등 연구소 대·내외적인 텍스트 생산 목표

6) 플랫폼과 소중시대 기획 연구

- '플랫폼 인류학'을 주제로 에세이 집필
- 연구 펀딩 모색 후 본격적인 연구작업 착수
- 외부 매체를 통해 글을 연재하고자 하며 이는 연구소 내 소중시대 세미나 팀에서 진행

7) 연대 사업 관련

- 하반기 학단협 탈퇴를 하되 그 과정에 있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고자 함
- 독립연구자 복지 정책(프로젝트)은 상반기 이후 타 단위와 함께 진행하고자 함.

8) 연구소 젠더 감수성 향상을 위한 페미니즘 세미나-프로그램 제안

- 문제의식: 한국 사회에서 민관을 막론하고 직장 내에서 1년에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연구소는 별다른 교육 및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임. 물론 상근직 운영간사 1명이라는 점과 기존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적합한 방식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함. 또한 소위 '여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 연구 및 실천을 지향하는 연구소의 정치적 입장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젠더 감수성 향상은 필요한 작업이라고 봄.

- 결정안

- 월 1회 운영위 회의 시작 전 약 1시간가량 페미니즘 세미나 운영
- 3월부터 시작하며 월 1권의 서적을 선정해 발제, 토론을 진행
- 4~5회 세미나 후 이론적이거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 내부 연구원들의 견해 차가 생길 경우 외부 여성단체와 간담회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음

- 상반기 페미니즘 세미나 선정 도서

일정	도서명	발제자
3월 9일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김소형

4월 13일	<우리에게겐 언어가 필요하다>	맹기돈
5월 11일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정지은
6월 8일	<아내가뭘>	김성윤

9) 2017년 예산(안)

2017년 수입				
항목	과목	근거	금액	비고
회비	CMS	- 525,000*12	6,300,000	
사업	강좌	- 500,000*8	4,000,000	
프로젝트	사업수익		2,824,000	
전년이월금			24,000,000	
수입합계			37,124,000	
2017년 지출				
항목	과목	근거	금액	비고
인건비	활동비	- 1,410,000*12 - 800,000*11	25,720,000	* 2월부터 소장 반상근
소 계			25,720,00	
운영비	보험료	- 140,000*12	1,680,000	
	통신비	- 11,000*12	132,000	
	수수료	- 16,000*12	192,000	
	회의비	- 11,000*12	1,320,000	
	세금		5,000,000	* 법인세 등
	관리비	- 110,000*12	1,320,000	
	기타	- 50,000*12	600,000	
소 계			10,244,000	
사업비	월담	- 100,000*8	800,000	
	세미나	- 30,000*12	360,000	
소 계			1,160,000	
지출합계			37,124,000	

2-4. 분단문화연구위원회

1) 활동방향

- ① 정례화된 학술모임 형식으로 분단문화연구위원회를 활성화시킴
- ② 조·중 경계지역 및 판문점 캠프그리브스 등 분단과 관련된 지역 답사로 새로운 시선으로 남북 관계 조명
- ③ 분단사회에 관심 있는 연구자, 예술가, 미디어 제작자 등 영입으로 분단문화연구위원회 외연 확장

2) 주요활동계획

(1) 운영계획

- ① 분단 70년, 이제는 이 땅에서 남북 통합을 위한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 북한의 문화와 예술,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로 소통의 지평을 넓히고 남북문화 통합의 장을 위한 남북의 문화예술 강좌 개설
- ② 북한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분단 현실에서 두만강에서 백두산을 거쳐 압록강으로 이어지는 조선과 중국의 국경지역을 종단하며, 조·중 국경지대 사람들의 삶 조망하기 위한 답사 진행

(2) 평화통일강좌, <70년 단절 뛰어넘기. 이제는 만나자! 남북의 문화예술>

주제	강사	사회
1 북한의 예술교육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 교수)	노혜경
2 북한의 총대신화, 총대문화	권금상(한예종 강사)	최준영
3 북한의 주체음악, 음악 교육	이철옥(전 북한 공연음악 교사)	권금상
4 북한의 리얼리즘 미술, 미술교육	안미옥(탈북예술인, 전 북한 미술교수)	안성민
5 프로파간다, 북한의 기록 영화	김승(건국대 교수)	이광석
6 노동신문의 지도자 사진	변영옥(동아일보기자)	강윤주
7 북한의 시와 시인	노혜경(시인)	이동연

8	김정일시대의 북한영화	안지영(인제대 강사)	권금상
9	만수대집단창작소, 예술 노동자	문범강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임정희
10	북한의 체육, 체육교육	김윤 (전 북한 체육 교사)	정용철
11	조·중 접경지역의 풍경	조천현(다큐감독, 압록강건너 사람들저자)	이종임
12	독일통일에서 문화/문화인의 역할	김누리 (중앙대 교수)	이원재
13	1박 2일 평화기행	판문점과 캠프그리브스	이두찬 안성민

(3) 분단문화 현장답사

① 판문점 및 캠프그리브스 답사

- 민통선 내 유일 미군부대 유희지였던 캠프그리브스 및 판문점 답사로 우리 내 분단에 대한 의미 고취

② 조·중접경지역 답사

- 분단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접근할 수 없는 분단현실에서 북한 주민의 삶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
- 또한 압록강에서 백두산 두만강까지 국경지역을 종단하고, 국경지대의 문화적 접근과 비교 및 탐색 예정

2-5.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1) 활동방향

-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전통적 언론미디어 영역이 재규정되고 있고, 이제까지 미디어 영역으로 대상화했던 내용들이 협소하게 정의되면서 논의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오늘날 급변하는 기술 현실과 여건에 맞게 미디어문화를 재정의하고, 미디어문화 지형과 운동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
- (구)미디어문화센터에서 줄곧 활동 방향으로 삼아왔던 전통적 문화산업 영역에서의 공정

미디어 생태계 구성과 영상미디어 담론과 이데올로기 분석에 치중하던 경향을 벗어나, 당대 기술과 미디어 시민감각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미디어문화를 재규정하는 시도 필요

2) 주요활동계획

(1) 운영계획

① 위원회 조직 차원에서, 기존의 언론학 전공자에 더해 뉴미디어 & 게임 정책, 문화콘텐츠 산업, 디지털문화운동, 데이터정의(data justice), 커뮤니티/시민 미디어, 전술미디어적 활동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잠재적 신진 집행위원들을 새롭게 확보

② 새로운 환경에서의 미디어(산업)정책의 매핑과 아젠다 제시

- 기술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공론장의 기능 회복 방안 재정의 필요, 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미디어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확대 등 목표로 미디어 산업정책 관련 논의 필요

- 문화정책센터/문화사회연구소와 함께 크리에이티브 문화산업 이론 및 정책 아젠다 발굴, 그리고 공동 기획안 마련, 그 첫 노력으로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재구성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향후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지형을 살펴보고, 이들 기술-미디어산업 생태계 논의

③ 기술+미디어문화실천 영역의 재구성 및 현실 개입의 방향 설정

- 기술발전은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를 구축하였고,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미디어 콘텐츠와 플랫폼의 개념을 변화시킴.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 구성 및 문화 향유방식 변화에 따라 문화실천의 주체와 현실개입으로서의 방법론에 대한 다각적 논의 필요.

- 조직 내적으로, 제 3 예술위원회와 시민자치문화센터와 함께 기술-예술-미디어-사회적인 것의 공통성 확보를 위한 매개 고리 찾는 작업 구상. 예컨대, 사회적 예술/개입의 예술미학(제3예술위원회)-시민 제작(시민자치문화센터)과 공통 연계할 수 있는 기술과 미디어의 실천 지형 방향 설정

(2) 운동의제

① 기술환경 변화와 문화산업 지형 탐색

- 「써드라이프(Third Life): 기술 문화혁명 시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엔터테인먼트의 변화와 전망」 (2017.3.~7., SK 후원) 공동 과제 연구 수행을 통해, 부상하는 새로운 문화산업의 지형에 대한 매핑과 향후 문제시될 수 있는 문화생태계 영향력 탐구
- 총 4회에 걸친 월례 발표회 및 단행본 작업 구성

② (가칭)‘테크노문화연구포럼’ 개최

- 포럼 개최 정례화, 때론 학술적 의제로 혹은 운동 현안 의제로 내용을 구성
- 주요 의제: 4차산업혁명과 혁신의 신화 비판, 그리고 기술주의를 넘어서
- 4차 산업 혁명시대, 개인과 공동체가 기술로 인해 권력을 얻는 동시에 정부와 기업, 이익집단에게서 소외되는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일례로 ‘권력을 잃은/얻은 시민(dis/empowered citizen)’의 개념을 따르자면, 시민은 기술의 변화로 더욱 쉽게 정보를 얻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을 얻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부가 기술을 활용해 시민사회와 개인에게 감시와 통제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논의 필요. 새로운 기술 환경 생태계에서 현실 개입의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아젠다 구성
- 향후 문화산업 노동의 새로운 빛과 그늘, 기술과 사회혁신의 뒤틀린 이중 신화, 공유경제의 허실, 데이터 노동의 시대, 인공지능과 노동, 메이커문화와 성찰적 테크놀로지 등 논의로 확장. 이들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신종 기술의 시장 활성화와 경제성장의 동력화에 주로 기대치가 높은 반면, 국내 사회문화적 필요와 토착화 과정에 대한 합의 및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 부재, 이에 대한 비판 담론 활성화와 기술성장주의의 맹신을 버리고 미디어통신기술과 시민사회적 결합도를 높이는 사회문화 혁신 방안 확산
- 기술+미디어포럼을 통해, 시민자치문화센터와 제3예술위원회의 공동 연계 가능한 기술과 미디어의 실천 지형 방향 논의 테이블 구성

2-6. 제3예술위원회

1) 활동방향

- ① 제3예술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 ② 예술운동을 둘러싼 이론 및 담론 정립, 사회적 의미화 등 진행
- ③ 예술운동의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2) 주요활동계획

(1) 운영계획

- ① 제3예술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 문화연대 집행위원을 포함하여 예술운동 주체들로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 ② 문화연대 제3예술위원회 (가칭)예술탐험단 구성 및 활성화
 - 문화연대 외부의 예술운동 전문가, 예술가, 활동가 등과의 일상적인 협력 체계 구축
 - 문화연대의 기존 협력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
- ③ 문화연대 타 활동기구들, 의제들과의 협력 활동 강화

(2) 월간 워크숍 (가칭)<제3예술제작소>

- 매월 정기적으로 예술운동 주체들이 교류, 소통,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워크숍 개최
- 이론, 담론에서부터 실천 전략과 방법론, 국내외 사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워크숍 기획 및 운영
- 일회적인 모임이 아닌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을 목표로 기획 및 운영

(3) 예술운동에 기반한 사회적 연대 활동

- 문화연대를 비롯하여 예술운동의 차원에서 기존 사회운동 연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평가 작업 진행 : 심층적인 연속포럼, 좌담, 인터뷰 등 기획하여 진행
- 평가를 바탕으로 현장 예술활동의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전략 및 방법론 모색
-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적인 전략에 기반하여 현장 예술운동 기획 및 추진

- 외부의 요청보다는 제3예술위원회의 자기 전략과 기획에 기반한 사회운동 연대 활성화

(4) 단행본 (가칭)<제3예술> 발간

- 제3예술위원회의 활동 과정을 토대로 예술운동의 이론과 담론을 정립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제안하는 단행본 발간(2018년 2월 예정)

2-7. 문화연대 재정특별위원회

1) 활동방향

- ① 문화연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정사업 기획
- ② 문화연대 운동의 특성에 맞는 재정사업 기획
- ③ 센터/위원회 운동의제가 회원사업/재정사업과 연결되는 활동양식 개발

2) 주요활동계획

(1) 운영계획

- 월1회 특위 정기모임 개최 : 특위 참여 집행위원, 상근활동가, 외부 전문가 등
- 정기모임은 ① 모금/재정사업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② 문화연대 재정 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 ③ 새로운 재정사업 기획 등에 대한 워크숍 형태로 진행

(2) 문화연대 재정보호 활동의 확대(다양화)

- 포털사이트 활용, SNS 기반의 모금, 클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재정활동의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적용
- 목적성/운동의제별 기금 조성방안

(3) 문화연대 운동의 특성에 맞는 재정사업 기획

- 나눔의 영화관, 기금마련전, 문화예술인 소장품 경매, 콘서트 등 기존 재정기획사업에 대한 평가
- 문화연대 운동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재정사업 기획

(4) 회원사업과 재정사업 연결 강화

- 센터/위원회별 운동의제와 회원-재정사업과연 연결 강화

2-8.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위원회

1) 활동방향

- ① 평창동계올림픽 D-1년, 메가스포츠이벤트의 문제점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
- ②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 국회 연계
- ③ 국내 스포츠/환경/문화단체와의 연계 강화 및 국제연대 확대

2) 주요활동계획

(1) 운영계획

- 월1회 특위 정기모임 개최 : 특위 참여 집행위원, 상근활동가, 외부 전문가 등
- 정기모임은 ① 평창시민모임 등 평창올림픽 관련 국내외 연대활동 기획 ②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워크숍) ③ 백서 등 기록작업 총괄 등의 역할

(2)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 등 메가스포츠이벤트 관련 법제도 개선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 : 유치과정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강화, 유치과정에서 지역주민 의사확인과정 추가, 사전타당성 분석에 대한 기준 마련 등
- 국회토론회 개최

(3) 평창동계올림픽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 사상 최악의 올림픽으로 예상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환경파괴, 노동권 문제 등

(4) 평창동계올림픽 백서 발간

- 평창동계올림픽 3수 유치과정, 준비과정, 대회 진행과정에 대한 백서 발간

(5)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내 캠페인 진행

- 환경파괴, 노동권 문제 등의 내용을 담은 한/영 지도 제작 및 배포
- 대안올림픽 개최 등 시민캠페인 진행

2-9. 블랙리스트 특별위원회

1) 취지 및 활동방향

-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예술계의 좌파청산 및 예술 검열 사태가 심화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필요
- 특히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을 침해한 심각한 중대 범죄행위로 문화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고 문화의 시계를 50년 전으로 되돌린 사건으로 백서와 아카이빙을 통해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제기.
- 김기춘, 조운선, 김종덕, 정관주 등 블랙리스트를 지시 작성한 주요 관련자들이 특검에 소환 되고 구속되어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의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함.
- 이명박 정부에는 문화예술계 좌파청산을 “문화권력 균형화전략”이란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 블랙리스트를 “문화계 공공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는데, 이러한 문화정책 내부의 행정 프로세스가 예술 검열과 블랙리스트작성에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분석할 필요
- 블랙리스트에 저항하는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블랙리스트 예술행동, 특검고발, 손해 배상 소송에 대한 기록도 백서와 아카이빙에 포함시켜 문화운동의 한 역사로 기록되어야 함.

2) 주요활동계획

(1) 목적

-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문화예술계 좌파청산 계획, 예술검열, 블랙리스트의 실체에 대한 기록.
- 문화정책에서 이념과 권력에 기반 한 국가 검열 사태를 심각한 문화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문화정책과 대항 문화운동의 역사의 교훈으로 삼음.
- 방송과 언론 및 국회국정조사, 특검의 조사기록을 바탕으로 블랙리스트의 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제적 자료들을 문서화
- 블랙리스트 사태에 저항한 예술가들의 활동을 기록 정리하고 한국 문화운동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

- 블랙리스트와 그에 저항하는 모든 문서, 영상, 시각문화, 음악, 공연 등의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기록으로 남김.

(2) 활동내용

- 이명박 정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관련 문서 및 좌파청산 계획과 저항에 대한 기록
- 블랙리스트의 사건일지를 정리
- 블랙리스트 문건입수 및 분석
-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논문, 비평, 칼럼, 기사, 영상, 시각문화, 디지털음악) 정리 및 아카이빙
- 블랙리스트 아카이빙 위원회 구성
- 블랙리스트 아카이빙 관련 행사 진행(백서발간, 토론회, 디지털 아카이빙 사이트 구축)

(3) 추진계획

- 2017년 3월: 블랙리스트 아카이빙 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
- 2017년 4월: 블랙리스트 아카이빙 위원회 발족(위원 위촉)
- 2017년 4-8월: 위원회 월례 워크숍(주제별 분야별 자료 정리를 위한 워크숍)
- 2017년 9월: 블랙리스트 백서발간 관련 자료 초안 완성
- 2017년 10월: 블랙리스트 백서발간 공청회 개최
- 2017년 11월-12월: 블랙리스트 아카이빙 백서발간과 디지털 아카이빙 오픈

2-10. 사무처

1) 활동방향

(1) 조직구조 개편에 따른 조직운영방안 마련

2017년에는 새롭게 활동기구가 신설됨. 상설-허브기능을 갖춘 3개의 센터(문화정책센터, 시민자치문화센터, 문화사회연구소)와 향후 문화연대 주요 활동으로 성장시켜나갈 운동의제의

활성화를 위해 만든 3개의 위원회(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제3예술위원회, 분단문화연구위원회), 그리고 2017년 1년 동안 집중적인 활동이 필요한 3개의 특별위원회(재정특별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 블랙리스트특별위원회). 사무처는 ‘3+3+3’으로 구성된 문화연대 활동기구들이 각각 제대로 작동할 뿐 아니라, 2~3개 센터/위원회 간 공동활동 조직 등 문화연대의 틀 안에서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함.

- 센터, 위원회 등 문화연대 활동기구 활성화를 위한 조직운영방안 마련 : 인적자원관리, 내부 커뮤니케이션, 소통/홍보, 회원사업, 재정확대, 문화연대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 자원활동관리 등
- 3개 특별위원회 운영지원 : 별도 상근활동가가 배치되지 않은 특위활동 지원
- 문화연대 운동 활성화를 위한 협업활동 활성화 : 시민문화아카데미, 문화활동가대회, 문화연대아카이브, 새정부문화정책 등

(2) 문화연대 운동에 대한 기록 강화

문화연대 운동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동안 문화연대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기록은 진행되지 못했음.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 문화운동에 대한 기록 또한 없는 것이 현실. 1999년 창립한 문화연대가 20주년이 되는 2019년 이전까지 문화연대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2017년)과 함께 문화운동에 대한 기록(2019년)을 병행하여 진행할 필요 있음.

2) 주요 활동계획

(1) 사무처 운영

- 상근활동가 1명 충원. ‘집행위원장-사무처장-상근활동가’(3인) 중심의 사무처 운영
- 변화된 조직운영구조에 맞는 조직운영방안 마련(상반기) 및 정착(하반기) 목표

(2) 조직운영방안

① 논의 및 의사결정 구조 : 집행위원회 회의(격주), 상근활동가 회의(주1회), 상/하반기 활동평가 전체워크숍(2회) 개최

② 활동계획 수립 및 사업/활동별 평가체계 확립 : 월/주/일 단위 활동계획(기구별 및 상근

활동가) 수립, 사전 기획안 작성 및 주요 활동 직후 평가서 작성(후기 형태, 뉴스레터 및 아카이브와 연계)

③ 인적자원관리 강화 : 문화연대 핵심활동가, 자원활동가, 회원, 네트워크 인력풀 등 문화연대 주변 인적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업데이트)

④ 문화연대 활동홍보 강화 : 문화연대 주요활동(토론회, 문화제, 기자회견, 워크숍 등)에 대한 사전/사후 활동보고(인포그래피, 뉴스레터 연계)

(3) 문화연대 주요 활동에 대한 협업 강화

- 2017 문화활동가대회, 대선 및 새정부 문화정책, 문화연대(문화운동) 아카이브, 시민문화 아카데미 등 2~3개 센터/위원회 참여 활동에 대한 사무처 차원의 지원

(4)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위원회, 블랙리스트 특별위원회, 문화연대 재정특별위원회

(5) 기타 조직운영 관련 활동

- 문화연대 홈페이지 리뉴얼
- 문화연대 뉴스레터 '문화빵' 재발행
- 문화연대 소개 리플렛, 책자, 연간활동보고서 등 제작

2017년 문화연대 재정계획

1. 수입계획

항목	과목	금액(원)	비고
회비수입	CMS 회비	100,000,000	2016년 평균 월725만원 회비수입 + 2월부터 월30만원 회비증액
	CMS 연대사업	54,000,000	
후원수입	개인 및 단체 후원금	100,000,000	재정특별위원회 사업
	대출금 상환	50,000,000	기획사업
	후원의 밤	30,000,000	
수입합계		334,000,000	
전년이월금		30,249,338	
수입총계		364,249,338	

2. 지출계획

항목	과목	금액(원)	비고
인건비	활동비	136,400,000	상근활동가 5인 + 활동가총원 2인
	상여금	1,400,000	설날, 추석 상여금
	소계	137,800,000	
운영비	복리후생비	1,500,000	전년도 기준
	보험료(4대, 화재)	15,000,000	4대 보험. 화재보험등
	대출이자	4,000,000	차입금 2억에 따른 이자지출(약 연2%)
	임차료	3,600,000	복사기, 정수기등(월 300,000원)
	교통비(출장비)	500,000	
	세금과공과	300,000	
	통신비	3,000,000	전화, 인터넷 등
	수도광열비	2,000,000	전년도 기준
	발송비	200,000	
	수수료	300,000	전년도 기준
	도서인쇄비	200,000	
	소모품비	1,000,000	전년도 기준
	회의비	2,000,000	전년도 기준
	교육지원비	500,000	
	소계	34,100,000	
사업비	사무처	6,500,000	후원의밤. 총회등
	센터. 위원회 사업	5,000,000	
	연대사업	39,000,000	시민자치 후원과 연대단위 후원
	CMS 연대사업	54,000,000	
	소계	104,500,000	
기타지출	차입금 상환	50,000,000	차입금 2억중 일부상환
	소계	50,000,000	
지출 합계		326,400,000	
차기년도 이월금		37,849,338	
지출 총계		364,249,338	

임원인선(안)

직책	이름
공동대표	원용진, 임정희
집행위원장	이동연
집행위원	강윤주, 권금상, 김도형, 김동원, 김상철, 김성운, 김현, 박소현, 박찬국, 송수연, 이광석, 이대택, 이종임, 정용철, 정원옥
감사	김상균, 이상희
자문변호사	문건영
사무처장	최준영
상근활동가	김소형, 박선영, 신유아, 안성민, 이두찬, 이원재, 최준영

2016년 문화연대 주요 활동일지

1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문화연대 1차 집행위회의(1/4)	[시민자치]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업무 개시(1/1)	[주간논평] 이제는 문화를 위한 문화융성이 필요하다(1/7)	문화정책주간브리핑_20160107
문화연대 2차 집행위회의(1/11)	[문화사회연구소] 김성윤 소장 <덕후감> 출간 북토크	[주간논평] 부산시의 예술인복지정책 수립, 112억짜리 전시사업이 되지 않길 바란다(1/15)	[문화연대동향] 문화연대 2016년 이것만은 꼭해라!(1/11) 문화정책주간브리핑_20160115
문화연대 3차 집행위회의(1/18)			[문화연대동향] 용산참사 7년(1/19)
	[콜트콜텍 수요문화제] 연대는 더 크게 vol.3(1/27)		[문화연대동향] 아침부터 눈이 살짝 내립니다(1/26)
	[토론회] 가수 싸이와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언론의 거짓말(1/28)		[자료집] 가수 싸이와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언론의 거짓말(1/28)

2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문화연대 4차 집행위회의(2/1)			[문화연대동향] 달력 첫 장을 뜯어냅니다(2/1)
문화연대 5차 집행위회의(2/15)		[주간논평] 문화정책이 사라진 문화부 업무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2/15)	문화정책주간브리핑_20160219

2016 문화연대 정기총회(2/25)	[월담] 청년, 민주주의의 길을 묻다 - SEALDs로 보는 일본 청년의 정치사회의식(2/22)	[문화연대동향] 대보름입니다. 부럼 한 움큼 입에 물고 소원을 빌어야겠습니다(2/23)
	[토론회] 서울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2/25)	[자료집] 서울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2/25)

3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문화연대 6차 집행위회의(3/7)	[포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3/11)	[주간논평] 게임중독이 질병이면, 게임이 병원균쯤 된단 말인가(3/10)	[문화연대동향] 문화연대에 깜짝 손님이 왔습니다(3/8) 문화정책주간브리핑_20160310 [자료집]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3/11)
	[월담] 사상으로서의 4.16은 가능하다(3/24)	[주간논평] 제20대 국회, 기본소득법 입법으로 출발합니다(3/16)	[문화연대동향] 세월호 참사 700일이 되는 날(3/15) 문화정책주간브리핑_20160323 [문화연대동향] 노동자의 죽임이 이제는 언론의 한구석 스치듯 지나갑니다(3/22)
문화연대 8차 집행위회의(3/28)	[토론회] 20대 국회에 제안하는 20대 문화정책 공개토론회(3/29)		[문화연대동향] 여당과 야당이 모호한 요즘입니다(3/29) [자료집] 20대 국회에 제안하는 20대 문화정책 공개토론회(3/29)

4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문화연대 9차 집행위회의(4/4)			[문화연대동향] 나른한 봄을 이기는 방법은, 마구마구 움직이는 것(4/5)
문화연대 10차 집행위회의(4/11)			[문화연대동향]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노란나비(4/12) 문화정책주간브리핑_201 60416
문화연대 11차 집행위회의(4/18)	[시민자치] 평창 계촌클래식마을 벽화프로젝트 착수(4/19) 광화문 세월호광장 토요문화제 stage416(4/23)		[문화연대동향] 추운 겨울을 뚫고 나온 봄처럼(4/19)
문화연대 12차 집행위회의(4/25)	[월담] '사표'와 '노동' 사이(4/28) 경의선공유지 파종프로젝트(4/30)		[문화연대동향] 그냥 그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4/26)

5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문화연대 13차 집행위회의(5/2)	광화문 세월호광장 토요문화제 stage416(5/7)		[문화빵] 5월 첫째주(5/2)
문화연대14차 집행위회의(5/9)	문화정책플랫폼 2020 1차 모임(5/11)		문화정책주간브리핑_201 60510 [문화빵] 5월 둘째주(5/10)
문화연대 15차 집행위회의(5/16)	학술단체협의회 연합심포지움 문화사회연구소 발표(5/20)		[문화빵] 5월 셋째주(5/18)
문화연대 16차	[술술포럼] 예술과	[주간논평] 20대 국회	[문화빵] 5월

집행위회의(5/23)	노동의 접합 가능성과 필요성(5/25) [콜트콜텍 수요문화제] 끝까지 함께(5/25)	문화 관련 상임위에 바란다(5/24)	넷째주(5/24)
-------------	--	-------------------------	-----------

6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대안문화포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존재의 이유를 묻다(6/1) 문화정책플랫폼 2020 2차 모임 ; 분야별 문화정책 현황공유(6/1)		[문화빵] 6월 첫째주(5/31) [자료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존재의 이유를 묻다(6/1) [자료] 문화연대 공동주택 프로젝트가 공급하다면(6/2)
	[기자회견]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장 착공 중단 축구 기자회견(6/9) [분단문화콜로키움] 1강, 남북 분다과 재일조선인의 평화(6/9)	[주간논평] 개문발차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지난 1년을 돌아봄(6/7)	[문화빵] 6월 둘째주(6/9) [자료]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장 착공 중단 축구 기자회견(6/9)
문화연대 17차 집행위회의(6/13)	문화정책플랫폼 2020 3차 모임 ; 차세대 문화연구자 플랫폼 구축방안(6/15)		[문화빵] 6월 셋째주(6/16)
문화연대 18차 집행위회의(6/20)	[분단문화콜로키움] 2강, 통일대박론 북한붕괴론 비판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6/23)		[문화빵] 6월 넷째주(6/24)
문화연대 19차 집행위회의(6/27)	[술술포럼] 예술노동들 둘러싼 쟁점들(6/29)		
문화연대 공동주택 프로젝트 ; 사무실 이사(7/2)	문화정책플랫폼 2020 4차 모임 ; 미디어분야 활동방향 및 전략(6/29)		

7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분단문화콜로키움] 3강, 독일통일 이후를 통해 본 남북분단과 남남갈등(7/1)		[문화빵] 7월 첫째주(7/8)
문화연대 20차 집행위회의(7/11)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경의선 책의 거리' 사업 토론회(7/12)	[주간논평] 표절논란, 예산낭비 'creative korea' 국가브랜드 철회하고, 문체부의 국정홍보 정책을 분리할 것을 촉구한다(7/12)	[자료집] '경의선 책의 거리' 사업 토론회(7/12)
문화연대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활동계획 수립 워크숍(7/18)	[분단문화콜로키움] 4강, 사드 설치를 둘러싼 논쟁과 한반도 평화(7/21)		

8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토론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8/4)		[자료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8/4)
	문화정책플랫폼 2020 6차 모임 - 지역문화재단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8/10)		
	[술술포럼] 예술, 기술, 그리고 사회적인 것의 관계(8/18) 문화사회연구소 포트락 파티(8/19)	[주간논평] 우리는 문화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문화부장관을 원한다(8/17)	
문화연대 21차 집행위회의(8/22)	문화정책플랫폼 2020 7차 모임 - 문화예술복지 분야 활동방향 및 전략(8/24)	[주간논평] 예술은 살피고 예술강사는 굶주린다(8/25)	[문화빵] 8월 넷째주(8/25)
문화연대 22차 집행위회의(8/29)			[문화빵] 9월 첫째주(9/2)

9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문화연대 23차 집행위회의(9/5)	[시민자치] 평창 계촌클래식마을 벽화프로젝트 종료(9/12)		
문화연대 24차 집행위회의(9/19)	[월담] 문화산업, 아마추어 웹툰작가, 노동(9/22) [한예종 중창포럼] 1차,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과 예술교육의 미래(9/22)		

10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문화연대 25차 집행위회의(10/10)	대안적 제작문화포럼 1회(10/13)	[성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10/11)	
	[북토크]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10/13) [기자회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예술검열 반대 예술행동 및 기자회견(10/18)		[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예술검열 반대 예술행동 및 기자회견(10/18)
문화연대 26차 집행위회의(10/24)	2016 문화활동가대회 (10/27~29) [월담] 대중형태와 정치적 주체성(10/27)		

11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한예종 중창포럼] 2차, 교원의 복지와 권익,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11/2)		[자료] 예술검열, 블랙리스트, 문화행정 파괴의 실제 박근혜는 퇴진하라(11/4)
	[시국선언] 예술검열, 블랙리스트, 문화행정 파괴의 실제 박근혜는 퇴진하라(11/4)		
	박근혜퇴진, 새로운 시민정부 구성 광화문 퇴진캠핑촌 참여(11/4~현재)		
문화연대 27차 집행위회의(11/7)			
문화연대 28차 집행위회의(11/14)	대안적 제작문화포럼 2차(11/15)	[주간논평] 지금은 문화부 차관 인사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11/18)	
문화연대 29차 집행위회의(11/21)	[월담] 제작하는 주체와 메이커문화(11/24)		
2016 문화연대 후원의 밤 '공유지에서 후원의 밤을 하야'(11/24)	[한예종 중창포럼] 3차, 한예종 산학협력 활성화와 프로덕션 시스템 구축(11/30)		
	경의선공유지 26번째 자치구 선언식 “공유지를 탈환하라”(11/27)		

12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문화연대 30차 집행위회의(12/5)			
문화연대 31차 집행위회의(12/19)	[한예종 중창포럼] 4차, (12/14)		

문화연대 송년회(12/19) [월담] 플랫폼
자본주의의
논리들(12/15)

문화연대 선정 '2016년
문화계 10대뉴스'
발표(12/26)

[자료] 문화연대 선정
'2016년 문화계 10대
뉴스'(12/26)

문화연대 정관 개정(안)

1999. 09. 18. (제정)
2000. 02. 19. (1차 개정)
2001. 02. 03. (2차 개정)
2002. 02. 02. (3차 개정)
2003. 02. 15 (4차 개정)
2004. 02. 07 (5차 개정)
2005. 01. 29 (6차 개정)
2006. 02. 17 (7차 개정)
2007. 02. 23 (8차 개정)
2009. 02. 05 (9차 개정)
2017. 02. 21 (10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의 이름은 ‘문화연대’이며 영문표기는 ‘Cultural Action’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단체는 문화운동을 통해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문화적 공공성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제3조(사업)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공공문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마련
2. 문화관련 법제, 예산, 행정,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감시와 비판
3.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시민자치 문화활동 촉진
4. 문화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비판과 대안 마련
5. 본 단체의 목적에 맞는 국내외 단체들과의 연대활동
6.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구성) 본 단체는 위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다.

제5조(소재) 본 단체의 주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6조(자격) 본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여 같이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7조(가입과 탈퇴)

1. 회원 가입은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른다.
2. 회원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본 단체를 탈퇴할 수 있다.

제8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3.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내규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원)

1. 본 단체의 사업과 활동의 필요에 따라 특별회원 제도를 둘 수 있다.
2. 특별회원은 본 단체의 단기사업 관련자나 자료구독자, 후원회원 등을 말한다.
3. 특별회원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제11조(징계) 본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단체의 활동을 방해한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1절 총회

제12조(구성) 본 단체의 최고결기구로서 특별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13조(소집) 정기총회는 연1회 1/4분기 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나 회원 100인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제14조(기능) 총회는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3. 임원의 선임
4. 집행위원회 혹은 회원 50인 이상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15조(의결)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단체 해산의 경우는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임원

제16조(임원)

1. 임원은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장, 사무처장과 센터, 위원회 등 각 활동기구의 장을 말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공동대표) 본 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여 본 단체의 활동을 이끄는 공동대표를 두며 필요에 따라 상임대표와 분야별 대표를 둘 수 있다.

제18조(사무처장) 단체 대내외적으로 실무 및 상근활동의 총 책임을 지며 조직업무총괄, 사업 업무총괄 및 대외 연대사업의 기획·조정을 한다.

제19조(감사) 본 단체의 사업과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2인내지 3인의 감사를 둔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구성)

1. 집행위원회는 감사를 제외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과 임원들의 협의로 선임한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2.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소집) 정기회의는 매주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집행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5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서 소집한다.

제22조(기능)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개최되는 총회까지 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새로운 활동기구 및 부설기구 설치 및 해산
2. 각 활동단위의 운영 규칙에 관한 인준
3. 집행위원이 제안한 안건
4.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위촉
5. 기타 본 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 집행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활동기구

제24조(활동기구)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활동기구들을 둔다.

1. 센터 및 위원회 : 본 단체의 활동과 사업을 실행 추진하는데 필요한 활동기구를 둘 수 있으며, 각 활동기구는 그 안에 운영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문화사회연구소 : 본 단체의 독립법인 연구소로 문화적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화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연구활동을 한다.
3. 시민자치문화센터 : 본 단체의 독립법인 기구로 문화적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화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문화예술활동을 한다.
4. 법률자문단 : 본 단체의 자문변호사들로 구성하며 문화 각 부문의 법령에 관한 문제제기나 법률상담, 소송 등의 활동을 주관한다.

제25조(특별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26조(전문위원) 각 활동기구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자문위원) 본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대해 자문해 줄 수 있는 사회 각계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28조(회계 연도) 본 단체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예.결산)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0조(수입) 본 단체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31조(수익분배) 본 단체의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준용 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민주주의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제33조(단체 해산시 잔여 재산의 처분) 본 단체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6장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2월 2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